

# 리아호나



# 리아호나



### 표지

앞 사진 촬영: 엘든 케이 린쇼트, 교회가 제작한 영화 *신권의 회복* 중에서, 원내: 사진 촬영: 존 루크, "요셉 스미스, 예언자", 10쪽 참조.



### 친구들 표지

제네크가 자신의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다. 사진 촬영: 새나 가즈나비, "앵벌리와 제네크 컷츠, 뉴질랜드, 웰링턴", 14쪽 참조.

친구들, 12쪽 참조



###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10 요셉 스미스, 예언자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결혼 생활 및 가족과 가정을 강화함
- 30 마호메트에 대한 말일성도의 견해 제임즈 에이 토론토
- 42 말일성도의 소리: "만인을 위한 구원"  
신앙의 시련 아우렐리아 에스 디에존  
내 생명이 연장된 이유 마리아 맥퍼슨  
업서를 통한 탐구 보비 모간
- 48 리아호나 2002년 6월호 활용하기

### 청소년 기사

- 20 3 센타보 조엘 비 마카리올라
- 22 질의 응답: 비회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편할 때  
와드에 있는 청소년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 26 바바우에 있는 친구들 재닛 토마스
- 47 알고 계십니까?

### 친구들

- 2 특별한 증인들: 우리 선조들의 신앙 조셉 비 위스린 장로
- 4 맨 끝 변경까지라도 세릴 짐머만
- 6 신약성서 이야기: 열 명의 나병 환자; 선한 목자
- 10 함께 나누는 시간: 모든 시대의 성전들 비키 에프 마푸모리
- 12 친구가 친구에게: 존 엠 매드슨 장로
- 14 친구 사귀기: 앵벌리와 제네크 컷츠, 뉴질랜드, 웰링턴 새나 가즈나비



47쪽  
참조



2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월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라셀 엠 넬슨, 델런 에이치 욱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찬슨

고문: 제이 켄트 줄리, 디블류 플루 거, 스티븐 에이 웨스트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엠 나이온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홀니

그래픽 책임자: 델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린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빌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라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레나 제이 커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선임 디자이너: 새리 쿡

디자이너: 태드 일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데니즈 카비, 헬리 프랫, 로널드 에프 스파크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와너

디자인/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다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435호, 제 39권, 제 6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2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희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문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황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에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베트남어,

폴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티어, 헝가리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June 2002 No.6. L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마음의 평화를 찾음”

2000년 6월호에 실린 “마음의 평화를 찾음”은 세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큰 위안을 받습니다. 훌륭한 기사를 게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음

영감 받은 목표

제가 감독으로 부름 받았을 때 와드에는 아 리아호나(포르투갈어) 구독자가 아홉 명이었습니다. 스테이크장님이 구독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표를 세계 물어보셨을 때 저는 15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그 2배인 30부로 목표를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와드 잡지 대표를 불렀고, 영감 받은 지도자가 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파이일서 3:7 참조) 1년 8개월 후에 구독자 수는 스물 아홉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쁨과 커다란 영이 그들의 가정에 깃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릴도 마르티스,  
브라질 디아데마 스테이크,  
파르케 도로테이아 와드

기사들을 읽고 토론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음

젊은 개종자인 저는 이따금 지부 회원들을 부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며, 또 답을 얻지 못한 질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부 회원들과 함께 르 리아호나(프랑스어)에 실린 기사들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저는 회원들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지의 메시지를 통해 제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았습니다. 세계 영감을 주시고 르 리아호나를 공부하겠다는 소망을 갖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교회 회원이 되고 전세계에 있는 다른 회원들의 간증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산드린 한탈라,  
프랑스 투르 지방부,  
르망 지부

우리의 이상을 굳건히 지킴

저는 지금 스물세 살이며, 2년 전에 침례 받았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알게 되었고, 복음 덕분에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매주 교회의 젊은 회원들과 함께 훌륭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교회가 그리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확고한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대의 예언자들의 권고에 따르겠다는 서로의 각오를 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프랭키 릴리,  
이탈리아 팔레르모 지방부,  
팔레르모 제2지부





#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마태복음 18:1~6)

## 아동 학대의 여러 양상들

얼마 전에 일간 신문을 읽다가 이 구절과 확고하고 솔직한 구세주의 선언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벌어진 한 어린이의 양육권 싸움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몰래 데려가 세계를 무대로 돌아다니는 동안 소송이 제기되고, 서로를 헐뜯고 분노를 보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열두 살짜리 소년에 관한 이야기로 그 소년은 마약을 먹으라는 동네 불량배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폭행을 당하고 볼로 해를 입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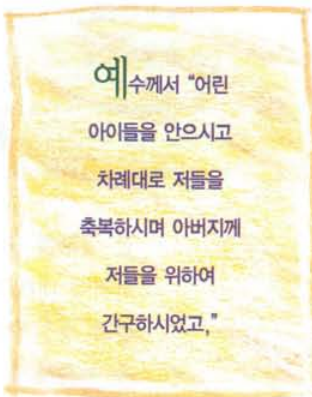
세 번째 기사도 역시 자신의 어린 자녀를 성희롱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의사가 우리 도시의 지역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많은 학대 받은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잘못을 저지른 부모들은 아이가 높은 의자에서 떨어졌거나 장난감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찧었다는 등 그럴 듯하게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학대자이고 어린아이는 무고한 희생자로 밝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어린이는 주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린이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린이와의 관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계에서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전 유아실에서 성실한 봉사자들의 친절함 보살핌을 받은 어린이들이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팔에 안겨 성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 준 사랑스러운 자매님들을 향해 몸을 돌려 손을 흔들면서 “안녕히 계세요, 천사님들”이라고 외치며 그 마음 속의 느낌을 전했습니다.

한 시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어린 아이를 “이 지상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서 갓 떨어져 나온 향기롭고 신선한 인간 꽃 봉오리”<sup>1</sup>로 묘사했습니다.

갓난아이를 팔에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며 그분의 권세를 기이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것처럼 작으면서도 완벽한 그 아담한 손은 당장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무엇인가를 꼭 쥐려 하는 갓난아이의 손 안에 새끼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못 배길 것입니다. 입가에 미소가 짓들고, 광채가 눈에서 반짝이며, 시인에게 펜을 들어 시를 쓰게 하는 감미로운 느낌을 누구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한낱 수면이고 망각일 뿐  
우리와 함께 소생하는 인생의 별인 영혼은  
어디에선가 거하던 곳,  
먼 곳으로부터 오는 것,  
완전한 망각도 아닌,  
완전한 별거승이도 아닌,  
영광의 구름 옷자락을 끌며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sup>2</sup>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마가복음 10:14~16)

우리가 따라야 할 얼마나 훌륭한 모범입니까?



### 한 시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어린이를 “이 지상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서 갓 떨어져 나온

향기롭고 신선한

인간 꽃 봉오리”로

묘사했습니다.

### 우리는 어린이들의 삶을 축복해 줄 수 있음

몇 년 전에, 어린이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게 만드는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케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로터리 클럽에서 마련한 소아마비 백신 세공을 위한 기금 모금에 우리 대관장단이 상당한 금액을 특별 금식 헌금에서 기부할 것을 승인했을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개인적인 의료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먼 나라로 여행하는 우리 의사들의 업적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에게 신체적인 손상과 정신적인 상처를 주는 선천성 구개 파열과 다른 기형들을 능숙하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가 슬픔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린이들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생애에서 일어난 기적에 놀라고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저는 매년 필리핀 군도를 찾아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자신이 지닌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을 위해 치아를 치료해 주는 우리 와드의 한 치과 의사에 대해 말씀한 적이



어린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개인적인 의료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먼 나라로 여행하는 우리 의사들의 업적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시 웃음이 찾아왔으며 정신이 건전해졌고 앞날이 밝아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 가운데 그 치과 의사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 딸이 앞으로 나와 자랑스럽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신 분이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또 그분이 어린이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멀리 떨어진 태평양의 섬들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한 선교사가 의사인 그의 매형에게 “매형의 부유한 고객과 호화롭고 안락한 집을 떠나, 지금 이 시각에 매형의 의술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에게 오십시오.”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과 의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선교사의 말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그 섬을 방문한 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봉사였으며 그의 마음에 찾아온 평화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묵묵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신장 한 쪽을 기증한 아버지에 관한 기사를 읽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

습니다. 저는 밤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힘든 수술을 통해 자신의 간 일부를 딸에게 주기 위해 시카고로 여행했던 이 지역에 사는 한 어머니를 위해 제 신앙을 다해 기도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딸을 이 세상에 낳을 때도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이 어머니는 다시 한 번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불평 한 마디 없이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기꺼운 마음과 신앙의 기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님은 루마니아에 있는 많은 고아들의 비참한 상태에 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쿠레슈티에만 30,000 명의 고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벨슨 장로님은 그 중 한 고아원을 방문하여 백신과 봉대 및 다른 응급 물품들을 교회에서 공급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이 고아들을 위해 특별히 봉사하게 될 부부 선교사를 찾아서 부름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어린이를 팔에 안거나 아버지 없는 아이의 손을 잡아 주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 같은 봉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생활에 축복을 주기 위해 선교사로 부름



타일러가 어머니 앞에서 그리스도상 밑으로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타일러를 자제시키려고 하자 타일러가 뒤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좋아하세요.”

받아 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무한히 많습니다. 기회는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으며, 때로는 바로 우리 집 주변에 있습니다.

#### 어떻게 어린이들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는가

몇 년 전에 저는 오랫동안 저활동 회원이었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한 자매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자신이 느꼈던 기쁨을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닌 남편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몹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 및 세 아들과 함께 아이다호 주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간 여행에 대해 적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를 차를 타고 지나면서 광고 게시판에 쓰여 있는 메시지에 그는 눈길이 끌렸습니다. 템플 스퀘어 방문을 권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비회원인 남편 붉은 한 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족은 방문자 센터에 들어갔으며 아버지는 두 아들을 “천국에 오르는 길”이라고 불리는 길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와 세 살 난 타일러는 멈춰 서서 벽에 장식된

아름다운 그림들을 감상하느라 그들보다 약간 뒤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토르발드슨의 대작인 그리스도 조각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어린 타일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상 밑으로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타일러를 자제시키려 하자 타일러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뒤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좋아하세요.”

방문자 센터를 떠나 다시 할머니 댁을 향해 고속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타일러에게 템플 스퀘어에서 구경한 것 중에 무엇이 제일 좋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타일러는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타일러?”

타일러는 몹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셨어요?” 다른 어떤 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이사야 11:6)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등회 찬송가 가사가 어린이의 마음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내 곁에 계시면 묻고 싶은  
갈릴리 바다 걸어가신  
재미난 일을 들려줘요.  
예수님 무릎 위에서 어린이가  
어떻게 축복을 받고 놀았는지  
자비와 사랑 가득히 찬  
인자한 얼굴 보고 싶네  
(어린이 노래책, 36쪽)

#### 니파이 백성의 어린이들을 축복하심

경전에서 니파이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세주께서 어린이를 축복한 기사보다 더 감동적인 구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로 이루어진 커다란 군중에게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신 후, 더 머물러 계셨으면 하는 그들의 신앙과 소망을 가룩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 줄 터이니 다리 저는 자와 눈 먼 자와 병든 자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쁘게 주님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록은 “예수께서 그 앞에 데려온 자를 낱알이 고쳐”(니파이삼서 17:9) 주셨다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그분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군중들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심을 우리가 보매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이나 귀로는 보고 들은 일이 없으며”(니파이삼서 17:16)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우시니 ...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레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 ...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니파이삼서 17:21, 23~24)

거듭 반복해서 저는 마음 속으로 다음 구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가복음 10:15)



#### 토마스 마이클 윌슨

선교사였던 토마스 마이클 윌슨은 구세주의 이러한 훈계를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앨라배마 주, 라페이에트에 사는 윌리와 줄리아의 아들입니다. 윌슨 장로는 1990년 1월 13일에 지상에서의 그의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가 십대 소년이고 그와 그 가족이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니었을 때, 그는 암에 걸렸으며 고통스런 방사선 치료를 받아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그의 가족은 삶이 귀중할 뿐 아니라 또한 짧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이 고난의 시기를 헤쳐 나가도록 도와줄 종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교회에

소개되어 침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 젊은 윌슨 형제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소망했습니다. 그에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이 왔습니다. 선교사로서 가족과 주님을 대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윌슨 장로의 동반자는 그의 신앙을 가리켜 의심하지 않고, 빛나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신앙으로 어린이의 신앙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었습니다. 11개



사진 제공: 윌리 윌슨과 줄리아 윌슨

토마스 마이클 윌슨 장로(왼쪽)의 신앙과 모범은 그가 가르친 한 구도자(앉아 있는 사람)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으며, 그 자매는 다른 몇 사람과 함께 병원에 입원한 윌슨 장로의 병상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윌슨 장로는 남은 손을 그녀의 머리 위에 얹고 그녀를 교회 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월 후에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골수암으로 이제는 팔과 어깨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계속하려는 윌슨 장로의 용기와 불타는 소망으로 인해 비회원이었던 아버지가 크게 감동되어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익명의 한 전화로 윌슨 장로의 커다란 역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총 관리 직원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슨 장로 같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저는 윌슨 장로가 가르친 구도자 한 사람이 템플 스케이 침례당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녀가 너무나 존경하는 윌슨 장로에게서 확인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다른 몇 사람과 함께 병원에 입원한 윌슨 장로의 병상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윌슨 장로는 남은 손을 그녀의 머리 위에 얹고 그녀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

했습니다.

윌슨 장로는 선교사로서 자신의 귀중한, 그러나 고동스러운 선교 사업을 한 달, 한 달 계속해 갔습니다. 그는 병자 축복을 받았고, 그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의 영은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벅찼으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윌슨 장로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 온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한 달만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한 달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어린 아이처럼 윌슨 장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토마스 마이클 윌슨이 묵묵히 신뢰했던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부모인 윌리 윌슨과 줄리아 윌슨, 그리고 동생 토니가 앨라배마에 있는 집으로 귀환하는 윌슨 장로를 도와 주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에게는 기도하고 소망해서 받아야 할 축복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제게 조던 리버 성전에 함께 가 줄 것을 부탁

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거룩한 가족 인봉 의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월슨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월슨 장로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 준 것을 고마워하던 그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에 따라 사는 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이며 얼마나 큰 자신감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월슨 가족은 라페아에트의 집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마이클 월슨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상으로 갔습니다.

월슨 장로의 지부장인 케빈 케이 매도우스 지부장이 장례식을 감리했습니다. 장례식 후에 그가 제게 보낸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슨 부대관장님, 장례식을 치르던 날 저는 월슨 가족을 한 옆으로 데리고 가서 부대관장님이 제게 보내 주신 애도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월슨 장로가 성전에서 그 날 부대관장님에게 했던 말, 즉 그가 복음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르치든, 저 세상에서 복음을 가르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의 말을 그 가족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부대관장님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1838~1918)님의 글을 참고해서 그들에게 보내 주신 영감의 말씀, 곧 월슨 장로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했으며, ‘이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장로’로서 ‘회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구속의 복음을 죽은 자의 영들이 거하는 광대한 세계에서 어둠 가운데 죄로 속박되어 있는 영들에게 계속해서 전파’ [교리와 성약 138:57]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월슨 장로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는 것을 영이 증거했습니다. 토마스 마이클 월슨 장로는 그가 달고 있던 선교사 명찰과 함께 묻혔습니다.”

월슨 장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이 묻힌 시골 묘지를 찾

아와 그의 무덤에 추도의 꽃을 내려놓을 때, 아들이 태어나던 날과 그들이 느꼈던 긍지와 그들의 순수한 기쁨을 기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이 작은 어린이는 후일 그들에게 승영에 이르는 기회를 가져다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묘지를 찾아와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눈물을 흘릴 때, 그분들은 결코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잃지 않았던 선교사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린 아이에게 꿀” (이사야 11:6)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속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을 축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강의 왕을 기억하고 따를 때 평화는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



###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어린 아이처럼

월슨 장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 주

1. Gerald Massey, “Wooded and Won”, *The Home Book of Quotations*, selected Burton Stevenson (1934), 121쪽.

2. William Wordsworth, “Ode: Intimations of Immortality from Recollections of Early Childhood,”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William Wordsworth* (1924), 359쪽.

3.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어린이 노래책*, 42쪽.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어린이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린이와의 관계에서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2. 어린이들의 생활에 축복을 주기 위해 선교사로 부름 받아 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무한히 많습니다. 기회는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으며, 때로는 바로 우리 집 주변에 있습니다.

3. 경전에서 구세주께서 어린이를 축복한 니파이삼서 17장의 기사보다 더 감동적인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요셉 스미스

## 예언자

배운 것은 없지만 젊고 겸손한 요셉 스미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그분의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교리 및 의식이 새롭게 계시되었는데, 여기에는 개계이고 사랑이 많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물몬경에서 그의 신성함에 대해 또 다른 증거를 보여 주고 있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에 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민족에 대한 간증으로서 유다의 막대기(성경)와 요셉의 막대기(물몬경)가 합하여질 것이라는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에스겔 37:15~22 참조) 저는 이 점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인 거룩한 신권이 고대에 이 신권을 지니고 있던 분들, 즉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시실 때 친히 성임하신 주님의 사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 우리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이 사람들 가운데 다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으로 자신을 새로이 내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지시, 신성하게 계시된 교리, 신성하게 선택된 지도자와 계속되는 계시, 그리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성신의 증거를 포함하여 초기 사도들의 교회가 지닌 그 모든 특성과 더불어 이 신성한 사건들은 깊이 생각해 보면 훌륭하고도 기쁨을 주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신성한 계시를 받는 데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예언되었던 젊은 요셉 스미스로서 그의 신앙과 소망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종교적

인 사건 중 하나"(Milton V. Backman Jr., "Joseph Smith's Recitals of the First Vision," *Ensign*, 1985년 1월호, 8쪽)를 가져왔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청소년기 이래로 저는 십대의 요셉이 따로 떨어진 장소를 찾아, 조용한 숲에서 무릎을 꿇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마음에 품고 있던 소망을 간구하는 생생한 모습을 믿고 마음에 지녀 왔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로우신 두 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은 그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여러 사람과 그리고 여러 장소를 통해서 겪은 예사롭지 않은 경험과, 친숙하면서도 영적인 개인적인 사건으로 축복을 받았으며, 성신의 권세를 통해 하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주님의 구원의 계획의 회복에 관해 더욱 깊은 증거와 지식을 받았습니다. 회복에 관해 요셉 스미스가 들려준 사건들은 사실입니다.

### 시현

우리 각자는 마음 속에서 회복이라는 진리에 관해 우리를 고양시키고, 성결하게 하며 또한 영화롭게 하는 느낌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성신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지식을 밝혀 주고 인봉해 줄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께서 나타나셨으며, 그리하여 그 위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요셉, 곧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분의 증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압니다.**



대하고 값진 진리로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열었던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첫번째 “시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믿음 그리고 신앙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 지식을 받는 도구 곧 계시자이며, 아버지의 계획에 있는 조항들과 조건들을 가르치도록 거룩하게 부름받았으며, 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요셉 곧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분의 증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강력한 예지의 형태, 특징, 나아가 특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그 예지에 속한 지혜, 창조 그리고 권세가 우주의 일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형상 그대로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요셉의 말에 따르면, 그 찬란함은 그가 아는 어떤 것보다도 더 밝았습니다. 그는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앞에는 영광스러운 두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 중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요셉 스미스서 2:17)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자신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어린 요셉에게는 상상도 못할 사건일 수도 있었으나, 실제로 주님께서 그를 방문하여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지시를 받은 아들은 무릎을 꿇고 있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교회가 다 옳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더럽혔습니다. 의식을 깨뜨렸으며,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주님은 인간이 만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교회의 조직을 포함하여 모든 진리와 권능이 회복될 때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너무도 놀란 것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

만 겸손했던 요셉 스미스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그분의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복음이 다시는 결코 거두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의 영광스런 시작이었습니다.

약 3년 후 성숙해지기 시작할 무렵 요셉 스미스는 하늘로부터 또다른 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파송된 한 천사가 요셉에게 자신을 모로나이라고 밝히고는 고대 미대륙에 살았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된 금판이 묻혀 있는 곳을 그 젊은이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때가 되자 이 기록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번역되어 1830년 초에 출판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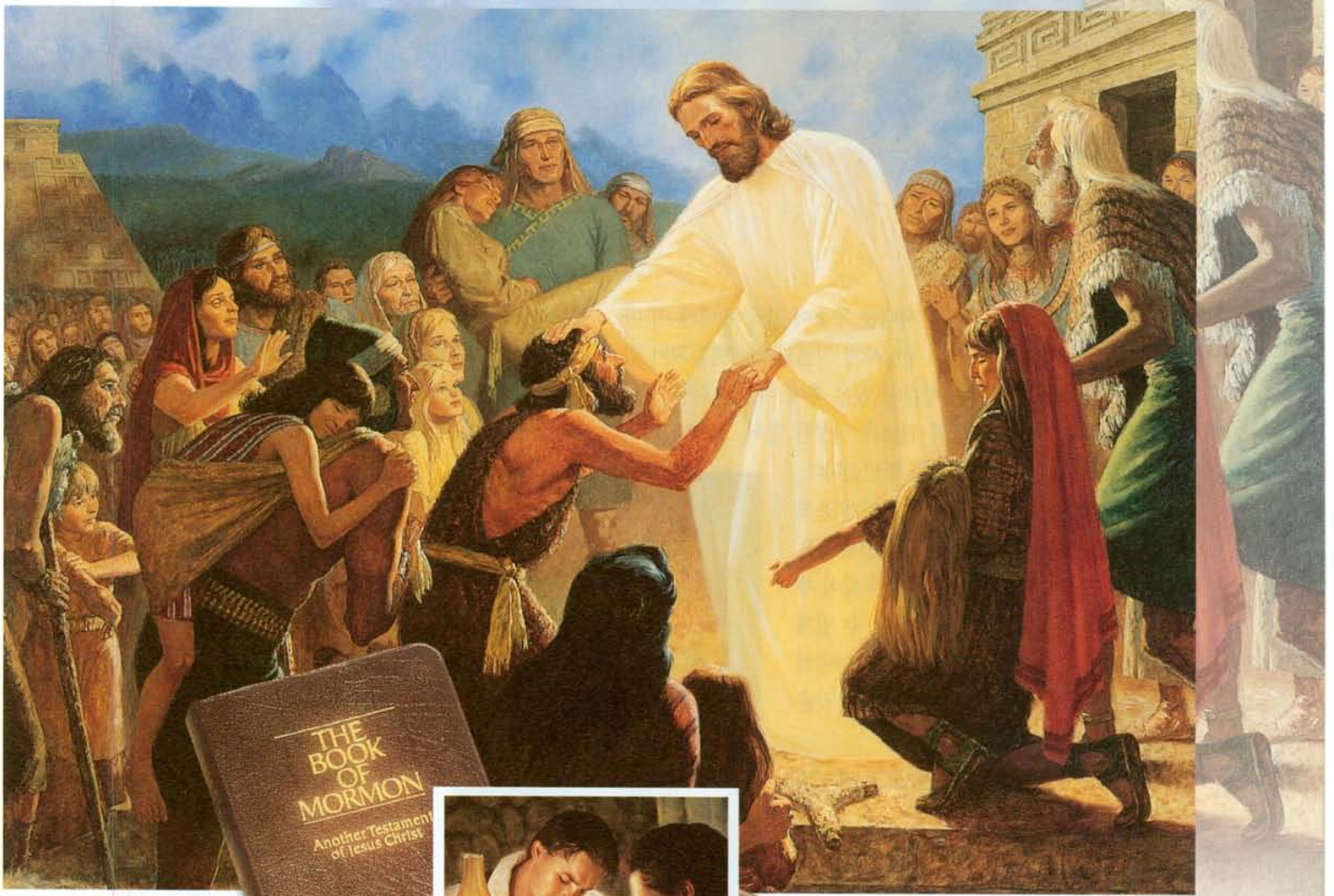


**모로나이는 고대 미대륙에  
살았던 어떤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된 금판이 묻혀 있는 곳을  
그 젊은이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 분명한 목적

물문경은 교리, 역사 및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책입니다. 그 책이 지닌 고결함은 17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지각없는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지만, 그 책의 입지나 영향력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확고합니다.

물문경은 호기심을 전해 주기 위해 등장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 모든 독자가 느껴야 하는 목적을 갖고 기록되었습니다. 책의 표제에서 우리는 그 책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 시키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담긴 메시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책은 그리스도께서 고대 미대륙을 실제로 방문하셨음을 말해 주며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위대한 권세로 전해 주신 가르침과 지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구세주의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입증해 주고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 주며, 구세주께서 인류의 구속주시요, 속죄자라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그 분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신성한 기록은 사람들을 그 메시지와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저는 이 고대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러한 방법으로 출현케 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놀랄 뿐입니다. 이는 그것이 요셉 스미스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841년 11월 28일 일요일에 관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브리검] 영 회장의 집에서 십이사도들과 함께 평의회를 갖고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 대화

몰몬경은 그리스도께서 고대 미대륙을 실제로 방문하셨음을 말해 주며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위대한 권세로 전해 주신 가르침과 지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다.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느라고 4년 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조셉 필딩 형제가 참석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History of the Church, 4:461)

요셉 스미스는 모든 경륜의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지도자로 정당하게 지명되기로 예임되어 있었습니다. 천사 모로나이의 방문이 있던 후에 하늘의 다른 사자들이 요셉에게 거룩한 신권의 권능과 신성한 열쇠, 권세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계시를 전해 주었습니다.

영감과 신성한 지시 아래에서 교회가 조직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교리들도 계시되었습니다. 신앙과 빛이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둠을 다시 몰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진리의 주인에게 구하고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를 갖고 계시며 그 영광은 표현할 수 없다.
2. 그분은 음성을 갖고 계시며 말씀을 하신다.
3. 그분은 사려 깊으시고 친절하시다.
4.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5. 그분의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다.
6.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령은 살과 뼈의 몸이 없으시고 다만 영적 존재시니라.”(교리와 성약 130:22)

비록 고대 경전들이 성전과 죽은 자의 침례에 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복음에 관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포함하여 만인을 위한 구원과 성전의 목적 그리고 승영의 기초가 되는 영원한 결혼 성약과 남자와 여자의 인봉을 밝혀 준 사람은 요셉 스미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1830년 6월에 있었던 교회의 첫번째 대회에 관해 기록하면서 “우리도 고대의 거룩한 사도들이 준수했던 것과 똑같은 반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History of the Church, 1:85) 커다란 기쁨에 관해 말했습니다.

## 주님의 예언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 아래 교회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기이한 일이 … 나타나라”(교리와 성약 4:1) 한다는 주님의 약속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선교사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수십 명, 그 다음엔 수백 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천 명이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꿇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

“세상의 약한 것이 나이와 능력있고 강한 자를 쳐부술 것이요 이로써 사람이 자기 이웃을 훈계하지 아니하며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며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 …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 땅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 이니라.”(교리와 성약 1:2, 19~20, 23)

정치가들은 이 새로운 현상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들이 규합되었으며, 예언자의 목숨은 위태로워졌습니다. 리버티 감옥으로 알려진 어둡고 습기찬 감방에 여러 달 동안 갇혀 있고 난 후에 낙담한 요셉은 주님께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린 큰 휘장이 어디 있나이까?

“언제까지 당신의 손이 가만히 계시며 영원한 하늘에서 당신의 … 눈이 당신의 백성과 종의 피해를 바라보시 … 기만 하시나이까?

“오 주여, 언제까지 저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으며 부당한 압



천사 모로나이의 방문이 있던 후에 하늘의 다른 사자들이 요셉에게 거룩한 신권의 권능과 신성한 열쇠, 권세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계시를 전해 주었습니다.



박을 받게 버려 두시며 어느 때에 당신의 마음이 저들에게 향하여 부드러워지시 ... 겠나이까?”(교리와 성약 121:1~3)

그러자 사랑하는 구세주의 대답이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너를 조롱하며 지옥도 네게 향하여 분노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게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

“또 네 백성은 배반자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결코 너를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 너는 존귀를 받으리라 ... 네 의로 말미암아 네 음성은 성난 사자보다 더 무섭게 원수에게 들릴 것이요, 네 하나님이 영원토록 네 곁에 서 계시리라.”(교리와 성약 122:1~4)

나부에서 대규모 군중에게 전한 마지막 공식 설교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위해 희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겨우 육신을 죽일 뿐이며 그들의 능력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친구 여러분, 굳건히 서시고 결코 겁내어 피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리를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영생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제 곁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제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6:500)

예언자가 겨우 38세의 나이로 인생의 아침에 있었고, 또한 그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갖고 있던 잠재력이 아직 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었기에 이 말씀이 더욱 놀랍습니다. 장차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에게 목숨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꺼이 희생하려 했습니다.

트루만 매드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란 그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커다란 고통을 겪지만,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오히려 빛을 발한다. 예언자란 한 마디로 성인이다.”(Joseph Smith Among the Prophets [1965], 21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렛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순교 당해야 할 자신의 운명을 원숙한 성인이 될 때까지 미룰 수 있었다면, ... 그는 분명 여러 면에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녔을 것이다.”(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1985], 32쪽)

요셉 스미스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 자신과 주변에 있던 제자들의 고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환난 중에 인내하라”

경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교회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굴러 내려 온 땅을 채워 가고 있는 것같이 보였습니다.(다니엘 2:44~45; 교리와 성약 65:2 참조) 정치가들은 교회의 움직임이 밖으로 확산되고 중심지에서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을 걱정했으며, 불법적인 소송이 제기되고, 법정 서류와 소환장이 발부되고, 그 지역의 행정 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카테지로 경비대들이 집합했습니다. 요셉과 하이람은 그들을 고소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바로 6월 24일 나부를 떠나 카테지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도시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던 성전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것을 볼 수 없으리라는 점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라. 이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24:8) 훗날 그는 역경이 “제이의 천성”(교리와 성약 127:2 참조)이 되었으나 그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데려다 줄 뿐”(B. H. Roberts, The Gospel and Man's Relationship to Deity [1965], 279쪽에서 인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1801~1877)은 요셉이 1,0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그가 38년 동안에 완전해졌던 것만큼 완전해 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Deseret News, 1854년

8월 3일, 72쪽 참조)

카테지로 가는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언자 요셉은 다음과 같은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 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 ... 세상 사람들은 저는 잔인한 자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였도다 말하리라.”(교리와 성약 135:4)

그는 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피할 시간이 있었으며, 그는 아직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기 전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필요할 경우 그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시시피강을 건너 피신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카테지로 갔습니다.

요셉은 분명한 겨울 밤에 폭도들이 집을 부수고 들어와 저주와 모욕을 퍼부며 아내와 병든 아이기 함께 누워 있는 자리에서 그를 떼어 내 밖으로 끌어내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의 목을 졸랐던 일과 같은, 그가 겪어 온 몇몇 위험한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벗은 몸에 타르를 뒤집어 씌운 후에 깃털을 붙이고 강제로 입을 벌려 타르를 넣은 다음 얼어죽도록 꽁꽁 언 땅에 내버려두었습니다.

말을 타고 카테지로 가면서 그는 미주리에 있었을 때 자신과 일부 형제들이 배반 당하여 원수들에게 넘겨졌던 일을 기억했을 지도 모릅니다. 폭도들의 지도자가 재판관을 소집했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동료들은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다음날 아침 여덟 시에 파웨스트의 광장에서 총살에 처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폭도들 간의 논쟁이 그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조롱하는 군중들에게 보여졌으

며, 다시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성도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옥에 갇힌 동료들에게 아무도 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지난 밤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는데 우리의 목숨은 하나도 잃지 않고 ...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164 쪽에서 인용)



**여러 달 동안 갇혀 있고 난 후에 낙심한 요셉은 주님께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린 큰 휘장이 어디 있나이까?”**

미주리에 투옥되어 있던 그 끔찍한 수개월 동안을 생각하면서, 그는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간수들을 꾸짖던 그 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잠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간수들의 지독한 신성 모독과 외설적인 농담으로 인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몰몬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범했던 소름끼치는 강탈과 살인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자랑거리로 그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끔찍하고 잔학 무도한 일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요셉이 벌떡 일어서더니 건물을 흔들기라도 할 듯한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조용히 하라! 이 지역에 머물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 하노니 조용히 하라. 나는 그런 말을 듣고는 한 순간도 견딜 수 없도다. 그런 말을 그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든 내가 죽든 누군가 즉시 죽으리라!”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180쪽에서 인용)

그 효과는 즉시 감전된 것처럼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감옥의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을 꾸짖기 위해 사용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간수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빛나는 얼굴에서 오직 의로운 분노를 보았으며, 그들을 꾸짖는 그의 음성에서 신성



어느 한 겨울 밤에 폭도들이 집을 부수고 들어와 저주와 모욕을 퍼부며 아내와 병든 아이가 함께 누워 있는 자리에서 그를 떼어 내 밖으로 끌어내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한 권세를 느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음성이 악한 자들을 꾸짖을 때 포효하는 사자처럼 두려운 것이었다면, 의로운 자들에게는 편안한 어머니의 음성처럼 부드럽어졌을 것입니다. 간수들의 신성모독을 잠잠케 한, 바로 그 이름과 그 권능으로 그는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회개한 죄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성신을 부여하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자정이 되어서야 나부를 출발한 여행이 끝났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카테지로 들어갔으며 그의 운명은 확실해졌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그가 오기를 참으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주지사는 폭도들에게 일을 만족스럽게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에게 해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다음날 심문을 마친 후에 보석금을 내고 요셉이 석방되었으나 반역이라는 조작된 죄명으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보석은 거부되었으며 요셉과 하이람은 카테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에 요셉은 간수와 감옥 문 앞에 모인 다른 사람들에게 물몬경의 신성함에 대해 강한 간증을 했습니다. 또한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감금된 것은 하나님이나 인간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먼저 요셉과 하이람이 삼방 안에 하나밖에 없는 침대에 누웠지만, 밤에 들린 총성과 소요 때문에 요셉의 친구들은 그에게 바닥에 누워 그들 중 두 사람 사이에서 자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으로 요셉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존 에스 풀머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신의 팔을 베개처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에 있던 댄 존스에게 몸을 돌린 후에 속삭였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 충실한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그 때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대업에 참여하는 데는 죽음이 그리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웨일스를 보게 될 것이며, 죽기 전에 형제님에게 맡겨진 선교 사업을 완수할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6:601)

다음날, 그 운명의 날인 1844년 6월 27일에 요셉의 친구 가운데 두 명을 제외한 모두가 감옥을 떠나야 했으며, 따라서 감



**예언자는 존 테일러 장로에게 “슬픔에 잠긴 나그네”를 불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직 구세주를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의 동역자들만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 노래를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옥에는 오직 네 형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즉 요셉과 하이람 그리고 그 날 요셉을 위해 죽겠다고 한 두 명의 사도들이 남았습니다. 그 날 그들은 각자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복음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세 시에서 네 시 사이에 예언자는 존 테일러 장로에게 “슬픔에 잠긴 나그네”를 불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위안을 주는 노래에는 각 구절마다 그리스도의 영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직 구세주를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의 동역자들만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 노래를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테일러 장로가 노래를 마쳤을 때, 예언자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일러 형제님,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겠습니까?”(Claire Noall, *Intimate Disciple: A Portrait of Willard Richards, Apostle to Joseph Smith—Cousin of Brigham Young* [1957], 440

쪽에서 인용)

존은 “노래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재앙을 감지하고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George Q. Cannon, *Life of Joseph Smith the Prophet* [1986], 524쪽)

“일단 시작하면 나아질 것이며 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요셉이 답했습니다.(Noall, *Intimate Disciple*, 440쪽에서 인용)

하이람도 노래를 다시 불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테일러 장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처음보다 더 슬프고 부드러웠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모두 조용해졌으나 네 사람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는데, 다음과 같은 운명적인 가사를 주의 깊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  
나 기꺼이 죽을 수 있나 물었네  
나 힘도 없고 두려웠으나  
내 하리라 대답했네

(찬송가, 30장)

다른 세 사람은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따라 요셉이 “내 하리라!”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노래 안에 있었으며, 인간의 사랑이 카테지 감옥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노래와 기도에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봉사의 영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폭도들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마지막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 오직 사랑만이 사랑을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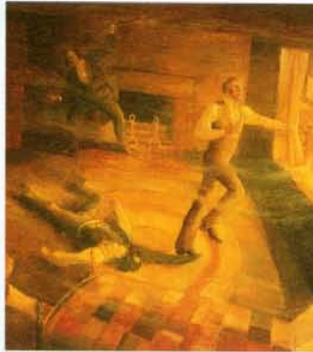
끔찍한 범죄의 소식이 나부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은 슬픔과 공포에 잠겼습니다. 일찍이 나부에서 그러한 슬픔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운 여름의 태양 아래에서도 그들은 춥고 떨렸습니다. 그들의 예언자와 축복사가 죽은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시신을 실은 마차가 아직 멀리 있었는데도 나부의 온 시민들이 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 날 요셉과 하이람에게 바쳐진 애도보다 더 큰 애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보여 준 그와 같은 절대적인 사랑을 이기적이거나 야심찬 사람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랑을 낳습니다. 한 번은 요셉에게 어떻게 그 많은 추종자를 얻어서 그들을 유지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랑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은 선량한 마음과 선량한 손뿐입니다.” (History of the Church, 5:498)

초기 이주민인 새라이아 워크맨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만 서면 언제나 신성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Joseph Smith, the Prophet,” Young Woman’s

Journal, 1906년 12월, 542쪽)

카테지에서 부상을 당하고 훗날 예언자가 된 존 테일러는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이 십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몰몬경을 세상에 내어 놓았나니,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를 번역하여 동서 양대륙에 이를



존 테일러 장로는 예언자에 관해 “옛적에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대부분이 그러하였듯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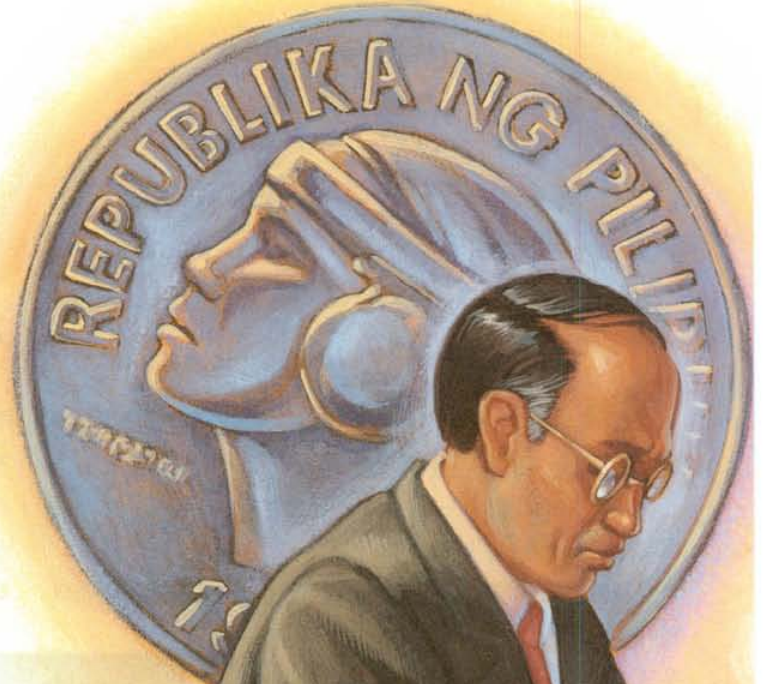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자신의 피로 인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간행하는 일에 매개체가 되어 이 책에 실려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세상의 네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전파하였고, 인간의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본서인 교리와 성약을 이루는 계시와 계명과 다른 많은 지혜로운 문서와 교훈을 세상에 내어 놓았고, 또 수 천의 말일성도를 모아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여 지울 수 없는 영예와 명성을 남겼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앞에서 위대한 생애를 보냈고 또 위대하게 죽었으니, 옛적에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대부분이 그러하였듯이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자신의 피로써 인봉하였고”(교리와 성약 135:3)

저는 저의 사랑을 전해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케 하시고, ... 모든 자를 저

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교리와 성약 76:41~42) 하시려고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국이 다시 한 번 지상에 세워졌습니다. 1820년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하는 데 도구로 쓰이도록 예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늘의 지시에 의해 그분의 재림, 즉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겸손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

# 3



3 센타보는 많은 돈 같지 않았지만, 그것을 찾아낸 일은 내 생애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조엘 비 마카리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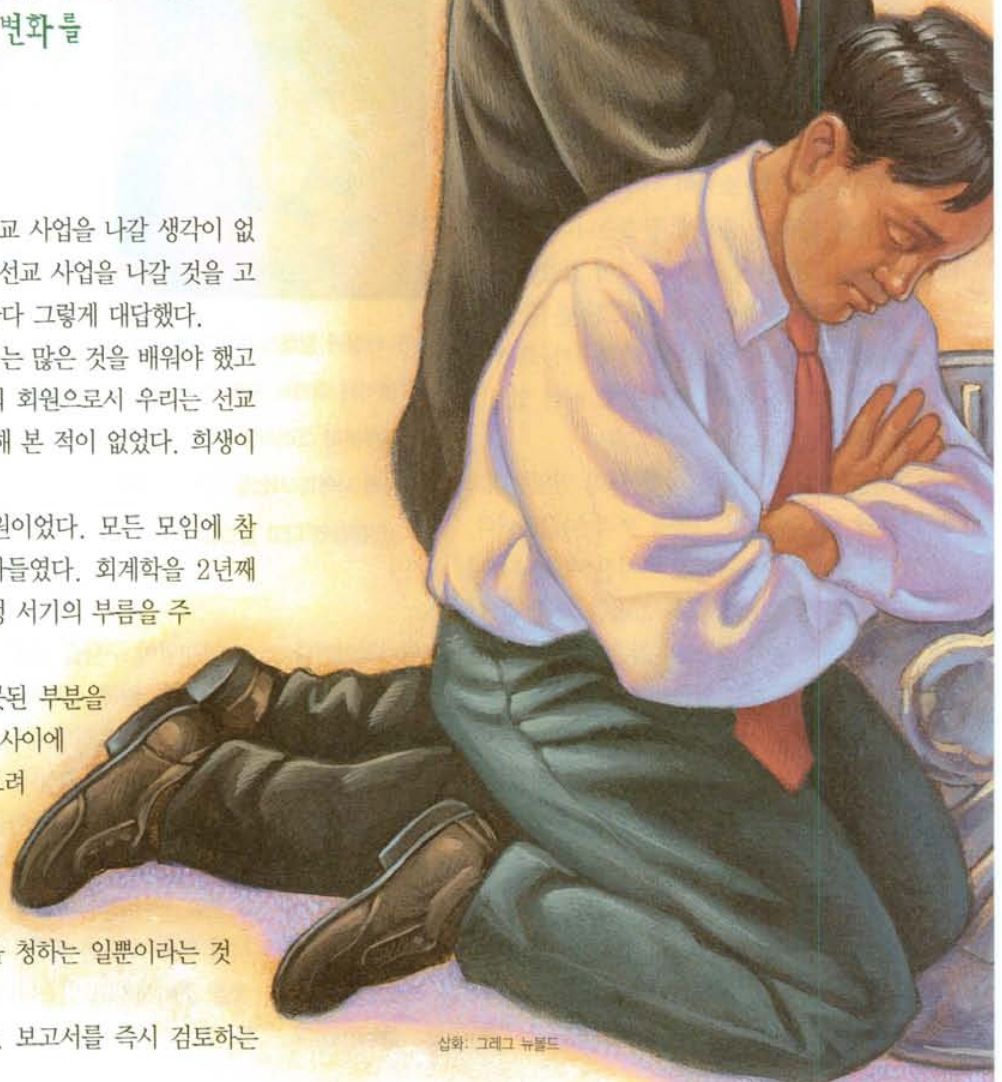
“아닙니다, 감독님, 저는 선교 사업을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감독님이 선교 사업을 나갈 것을 고려해 보라고 권유할 때마다 그렇게 대답했다.

우리 가족이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했고 많은 것을 버려야 했다. 일 세대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는 일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 희생이 너무나 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활동적인 회원이었다. 모든 모임에 참석했으며 주어지는 책임들을 다 받아들였다. 회계학을 2년째 공부하고 있을 때 감독님은 내게 재정 서기의 부름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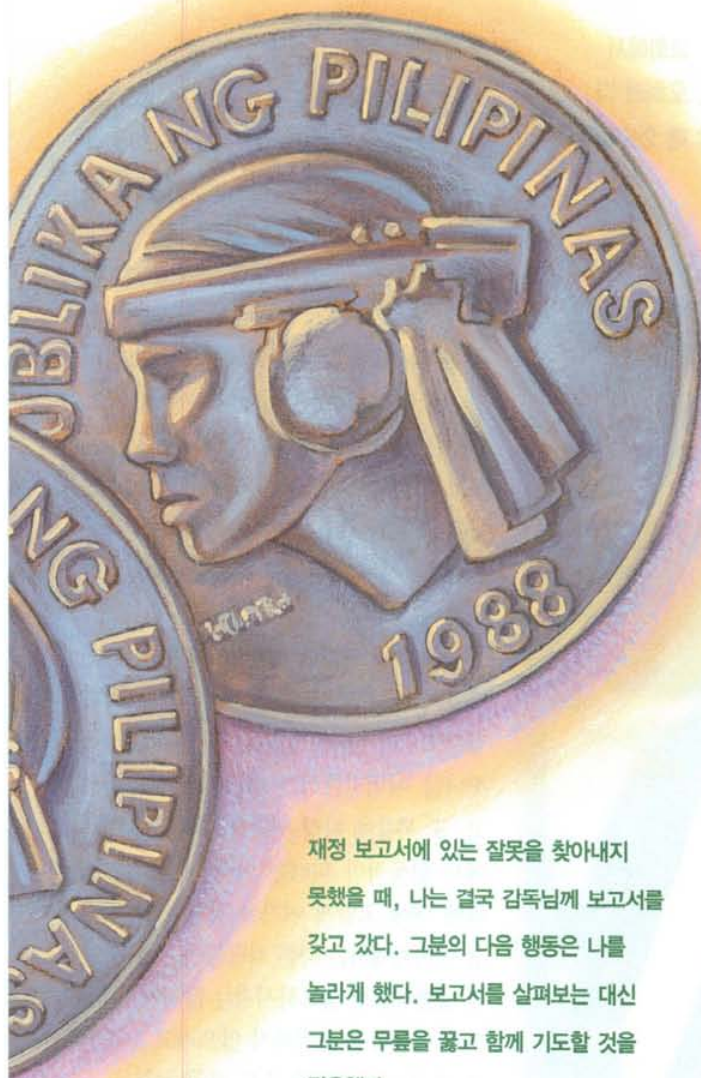
어느 수요일 나는 보고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있었다. 교회 기록과 은행 기록 사이에서 3 센타보의 차이가 나는 것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보고서 제출 기일은 다음날까지였으며 그 마감일은 나를 더욱 낙담케 했다. 유일하고도 현명한 방법은 도움을 청하는 일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감독님께 문제를 설명드렸다. 보고서를 즉시 검토하는



삽화: 그레그 뉴볼드

# 센터보



재정 보고서에 있는 잘못을 찾아내지 못했을 때, 나는 결국 감독님께 보고서를 갖고 갔다. 그분의 다음 행동은 나를 놀라게 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는 대신 그분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것을 권유했다.

대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드리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설명드리자고 감독님께서 권유했을 때 나는 놀랐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감독님은 보고서를 보자고 했다. 그 순간 계산기도 사용하지 않고 그는 어느 한 난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문제가 여기에 있군요.”

내가 다시 숫자를 더해 보니 감독님께서 지적한 것이 옳았다. 마치 기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에 대해 내가 갖고 있던 어리고 약한 간증이 강화되었다.

이 경험에서 받은 깊은 영향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감독님이 다시 물었다. “선교 사업을 나가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예”라고 대답했다.

그 날 밤 예배당을 떠나면서 나는 제출해야 할, 선교사 부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들고 나왔다. 나는 곧 필리핀 바기오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 날 밤의 그 응답된 기도 이후로 여러 해가 흘렀다. 2년 간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나는 복학했으며 내 또래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4년 늦게 대학을 마쳤다. 그러나 같은 일을 되풀이해야 한다면, 나는 여전히 봉사하는 일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시고 또 속삭임에 순종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드리고 싶다. 그분은 내가 3 센터보를 찾아서 보고서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을 뿐 아니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선교 사업의 경험이라는 값진 것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 □

조엘 비 마카리올라는 필리핀 바콜로드 사우스 스테이크, 탕급 와드의 회원이다.

# 질의 응답

비회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편할 때 와드에 있는 청소년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교회의 교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몇 안 되는 제 또래의 교회 회원들은 저를 놀리거나 피합니다. 교회에서 그들은 저를 무시합니다. 저에게 잘 대해주는 친구들은 비회원들입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비회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편할 때 와드에 있는 청소년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매튜 라이더

## 리아호나의 대답

이 질문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와드나 지부에 있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회원 친구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불행하게도 말일성도들이 항상 모범적인 생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때때로 친절과 사랑이라는 문제를 두고 고심합니다. 그 결과 때때로 청소년들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거나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와드나 지부에서 활동적이 되려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에 대해 고맙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강요하시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대신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결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놀리거나 무시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독선적이지 않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친절한 행동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적의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또한 그들이 여러분의 됴됨이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대한다면, 그들은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할 것이며 그에 걸맞게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에게서 적절한 권고와 도움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감독이나 지부장은 그 분이 감리하는 회원들의 영적인 복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해야 할 일을 알기 위한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도록 하지는 마십시오. 말일성도 친구를 사귀는 일을 포기한다면 봉사하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와드와 지부에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적든 여러분의 우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초등학교 어린이 가운데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있는 않습니까? 미망인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있는 어머니가 있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와드나 지부의 많은 회원들이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질문, 즉 비회원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다루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여러분을 잘 대해 준다면 그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십시오. 좋은 친구들은 훌륭한 재산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을 존중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표준에 어긋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에 따라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그것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하는 관심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대해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많은 긍정적인 가치관을 나누고 세상의 유혹과 악을 피하는 데 서로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 독자들의 대답

누군가 저를 놀린다면 저는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취급 받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제가 당하는 어려움은 비교되지 않을 것이며 저는 계속해서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교회에 가는 일이 중요한 것은 친구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의 법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리 마르티니 와르도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부,  
자카르타 사우스 지부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친구가 필요하며 또 교회 회원들과 친구가 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과 친하게 지내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걷는 데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중**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듯이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친구들과 서로 공감하는 가치관을 나눈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많은 비회원들이 그들을 교회 활동에 참여시킨 친구들을 통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하늘 나라에 닿을 수 있도록”,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53쪽)

### “훌륭한 친구가 되십시오.”

**“중**은 친구들을 사귀려 한다면,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여러분의 그러한 관심을 알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하십시오. 부끄러움 타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십시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12쪽)



데이비드 크리스토폴발  
바에조 도망구에스,  
온두라스 페시트란 스테이크,  
출로마 와드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저는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그들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그들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프랑스와 응인두 응인두 장로,  
콩고 민주 공화국  
킨샤사 선교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후오마 치디에베레  
러브데이,  
나이지리아 포트  
하코트 선교부

어떤 회원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근거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마태복음 5:39)는 원리에 두십시오.



캐더린 슬라이트,  
퀘벡 몬트리올 스테이크,  
마스쿠취 와드

우리는 가장 훌륭한 친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모님 그리고 가족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견디어 내십시오. 이것이 어찌면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소야,  
브라질 리오 그란데 스테이크,  
포르토 벨호 와드

우리는 시험 받고 증명하기 위해 이 지상에 있으며(아브라함서 3:25 참조), 어떤 시험들은 가족, 친구 또는 이웃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하며 여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8:67~68 참조)



심보에 도에,  
리베리아 몬로비아 스테이크,  
로간 타운 와드

회원들이 여러분을 놀리거나 무시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을 더 잘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회원 친구들을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복음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이 친구들이 교회 회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첸 유-추안,  
뉴욕 브루클린 스테이크,  
다이크 하이츠  
제4(중국) 지부

친구를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소 짓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와드 회원들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얼굴에 미소를 짓고 또 다시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볼 때 어찌면 변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인내, 훌륭한 태도, 신앙과 기도로 접근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이 보다 쉽게 풀릴 것입니다.



비앙카 보르카르트,  
독일 하노버 스테이크,  
할베르스타트 지부

**질의 응답**은 청소년 기사로서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보내 온 응답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을 골라 게재합니다. 여러분의 답을 2002년 7월 1일까지 도착되도록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05/02,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다음 주소 CUR-Liahona-IMag@ldschurch.org 로 전자 우편을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타자하거나 정서하면 됩니다. 성명, 나이,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이 적혀 있는 응답만 채택됩니다. 사진을 한 장 보내 주십시오.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저는 개척자들에 대해 읽었지만 그 분들의 경험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공공연한 박해와 신체적인 고통을 견디어 냈지만 제가 당면한 반대는 더 미묘합니다. 어떻게 개척자들의 경험이 제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 결혼 생활 및 가족과 가정을 강화함

**다** 음 내용을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과 함께 읽고, 질문, 성구 및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 토론한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경험과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 주님은 결혼 생활과 가족 및 가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마가복음 10:6~8: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이 독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가족에 관한 권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현세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성인 회원들도 종종 가정에 특별한 힘을 줄 수 있으며, 자

신의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에게까지 사랑과 지원과 수용의 큰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강화함: 우리의 거룩한 의무”,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40쪽)

## 어떤 단순한 것들이 강한 가족 관계를 이룩할 수 있는가?

모사이야서 4:15: “너희는 ... 저들에게 ...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치며”

대관장단: “부모와 자녀되시는 여러분은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및 건전한 가족 활동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요구 사항이나 활동이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가족만이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임무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관장단 서한, 1999년 2월 11일;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1쪽 참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훌륭한 결혼

생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노력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정성을 다하여 결혼 생활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하고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인생의 책임”,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4쪽)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계속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생활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나누고 ... 여러분의 생활에 그의 축복을 간구할 때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는 요소와 폭풍은 제지되고 방지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집이라야”, 성도의 빛, 1971년 10월호, 29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만일 여러분이 독신이고, 해외 왕국의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면 그것을 위해 생활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하십시오. 장막의 이편이나 저편에서 주어질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할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의 표준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전 축복을 받음”,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31쪽)



# 친구들

## 바바우에서



재닛 토마스 사진 촬영: 글렌이

**이** 포니 타푸엘루엘루는 조금 외로웠다. 그는 자매들만 있는 가족 중에서 유일한 아들이었다. 누나들은 성장하여 다른 친구들과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에게는 친구가 필요했다.

이포니가 열세 살쯤 되었을 때 하루는 통가 북쪽에 있는 섬들 가운데 하나인 아름다운 바바우 섬에 있는 다리 근처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포니는 피터라는 다른 소년이 혼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만큼 외로워 보였다. 이포니는 피터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친구가 없어. 친구가 필요해. 나도 친구가 필요하고. 그들은 곧 떨어질 수 없는 친구가 되었으며, 이포니가 교회에 갈 때에만 헤어져 있을 정도였다.

바바우 섬에는 세 개의 스테이크와 수십 개의 와드와 지부가 있었다. 이포니는 교회 안에서 성장한 많은 통가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여덟 살에 침례를 받고 집사로서 충실하게 와드 모임에 참석하고 의무를 수행하고 활동에 참여했다.

그의 새로운 친구인 피터 맥클린에게는 몇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실종되어 돌아가셨다. 피터와 누이들인 릴리카와 레이 그리고 어머니인 하이니테가 홀로 남았다. 피터는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고모가 그에게 말일성도 학교인 사이네하 고등학교에 다니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주 수업에 빠졌다. 교장과 교사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격려했다. 그러던 중 이포니를 만났으며, 그의 생활은 변하기 시작했다.

피터 맥클린(왼쪽)은 이포니 타푸엘루엘루에게서 커다란 우정을 찾았다. 그들의 우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게 했다.





왼쪽: 사이네하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이포니. 오른쪽: 피터와 이포니는 와드 보조서기로 봉사하고 있다.

피터와 이포니가 친해지면서 이포니는 자연스럽게 피터에게 자신이 하는 모든 것, 즉 상호 향상 모임 및 세미나리, 그리고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했다. 처음에 피터는 교회에 대해 실제로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그에게는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좋은 친구가 있었다.

이포니는 어렸을 때의 몇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로 인해 강한 간증을 갖고 있었다. 여덟 살 때 이포니는 아주 날카로운 진짜 별채용 칼을 갖고 칼싸움 놀이를 하다가 눈을 베어 크게 다쳤다. 의사는 그 눈으로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와 감독님께서 신권 축복을 주시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눈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 3개월 후에 상처는 남았지만 시력은 되돌아왔다. 전기가 그의 가족이 사는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는 감전되어 거의 죽을 뻔했었

집 현관에서의 피터와 어머니 하이니테.



다. 다시 한 번 신권 축복이 주어졌으며,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다. 이제 그는 십대 소년으로서 신권의 권세에 대해 아무 의심도 하지 않는다. 이포니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아론 신권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주님의 권세에 충실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간직하고 아론 신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포니는 피터에게도 그의 인생에서 똑같은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터는 상호 향상 모임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을 항상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피터는 이렇게 말한다. “이포니는 매주 일요일, 집 밖에 서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피터의 간증도 자라나기 시작했다. 세미나리가 큰 도움이 되었다. 피터는 이렇게 말한다. “하루는 교사가 사탄에 대항하고 일상 생활에서 찾아오는 시련을 견디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0편 5절은 열심히 기도하면 유혹에 대항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구는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열일곱 살이 된 이포니와 피터는 선교사로 봉사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들은 훌륭한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가능성을 본다. 예를 들면, 바바우에 사는 15,000명 이상의 주민들 가운데 반 이상이 교회 회원이라고 피터는 지적한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다. “나머지 반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돕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 눈에 보아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터와 이포니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의심은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신앙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신앙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감독은 이 두 사람을 통가 네이아푸 바바우 웨스트 스테이크 네이아푸 제4와드의 와드 보조서기로 불렀다. 그 부름에서 그들은 교회에서 매주 열 다섯

피터(오른쪽), 이포니(중앙), 그리고 그들의  
친한 친구인 로페티가 아름다운 바바우 항의  
한 부두에 잠시 멈추어 섰다.

시간씩 기록을 갱신하고 교회 주변을  
관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터와 이포니는 복음을 자신의 생활  
과 바바우에 있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  
위대한 힘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  
은 선교사 복장을 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  
하며 시간을 보낼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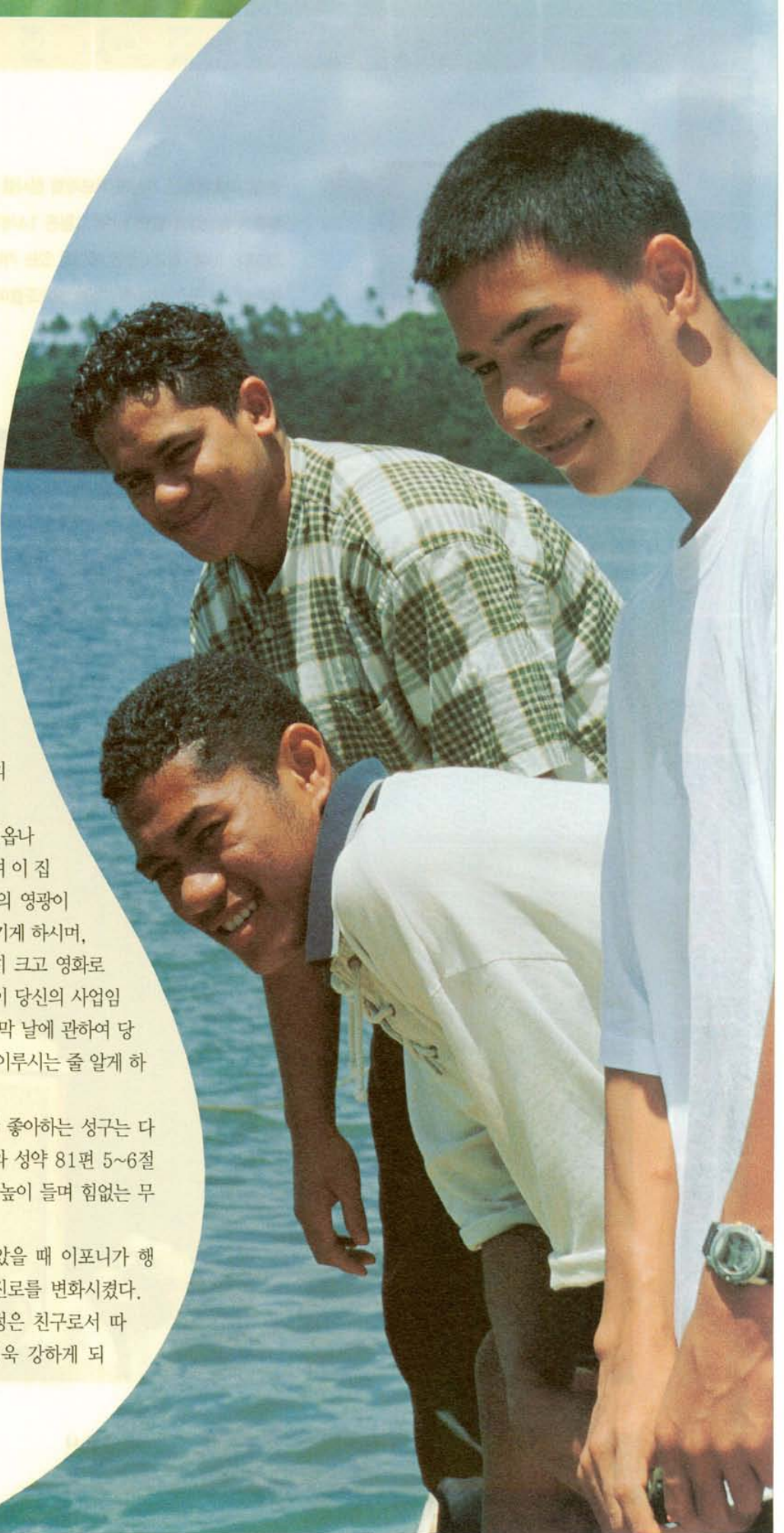
피터는 세미나리에서 배운 성구가 자신의  
기도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  
니,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집  
에서 나아가며 당신의 이름을 받들며 당신의 영광이  
저들을 둘러 싸며 당신의 천사가 저들을 지키게 하시며,

“저들이 이 곳으로부터 진리 안에서 심히 크고 영화로  
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이것이 당신의 사업임  
을 알게 하시며 당신께서 손을 펴시사 마지막 날에 관하여 당  
신께서 예언자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줄 알게 하  
옵소서.”(교리와 성약 109: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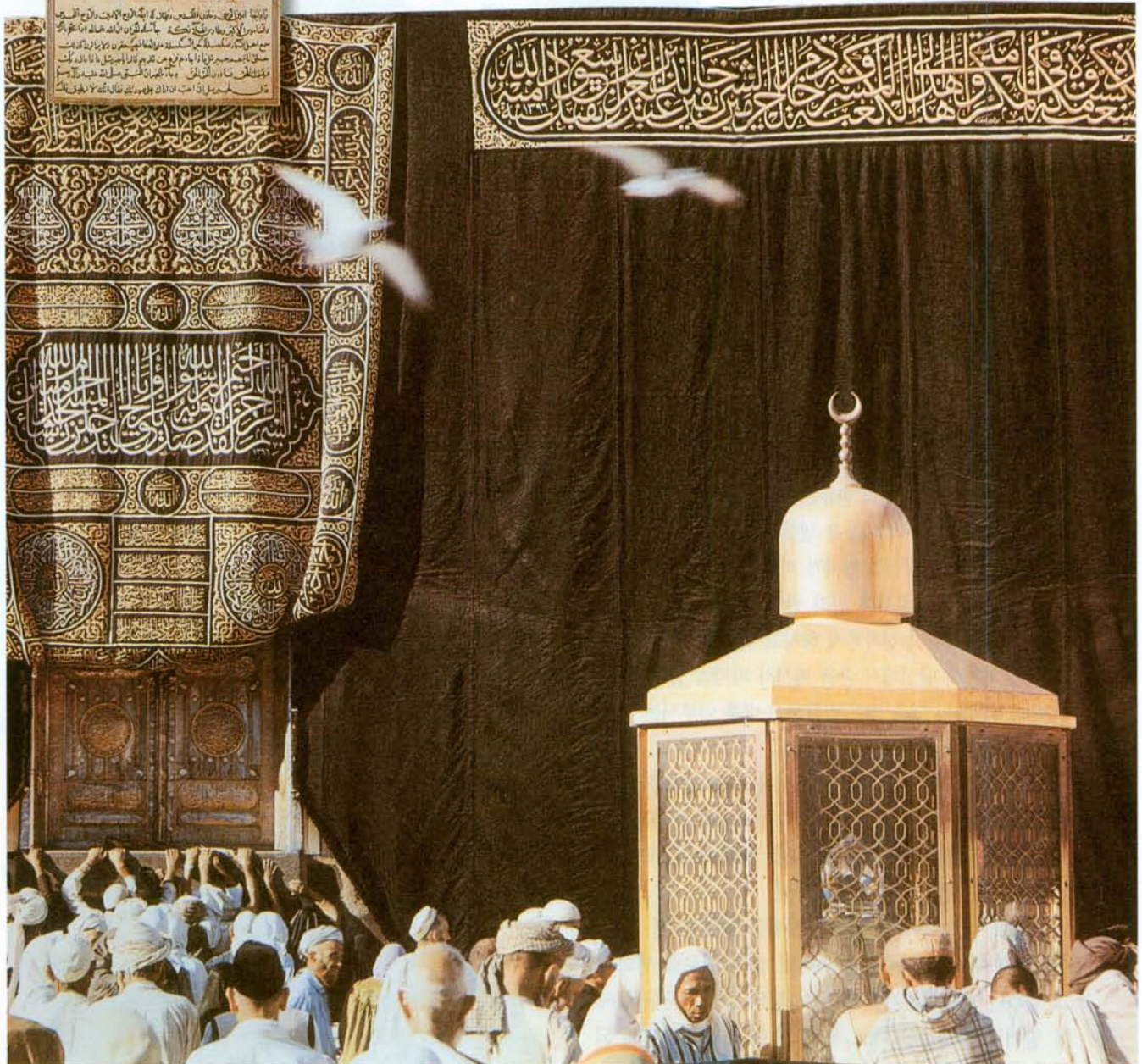
크게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포니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는 다  
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한 것이다. 교리와 성약 81편 5~6절  
에서 주님은 충실하게 되고 또 “차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  
릎을 강건케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친구가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이포니가 행  
했던 일이다. 그의 우정은 피터의 삶의 진로를 변화시켰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친구로서 따  
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도 복음 안에서 더욱 강하게 되  
었다. □





왼쪽: 마호메트는 자신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알라(하나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그림은 14세기 회교도 화가가 그린  
것이다. 아래: 회교도들은 메카에 있는 카바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는다. 이 곳은 전세계에 있는 회교도들이 그곳을 향해 매일 다섯  
번씩 기도를 드리는 성소이다.





# 마호메트에

## 대한 말일성도의 견해

회복된 복음에 관한 이해를 근거로 한 마호메트에 대한 견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나라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점을  
더욱 깊이 알게 해 준다.

제임스 에이 토론토

나 는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두 명의 교회 회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들은 파키스탄 출신의 한 회교도 이웃과 친교를 맺고 있었다.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관한 이야기를 그와 나누었을 때 그들은 그의 반응에 놀랐다. 회교도들은 마호메트 이후의 어떤 예언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서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가 마호메트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호메트가 하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예언자로서의 새로운 부름을 그에게 알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새로운 경전에 관한 계시를 받았으며 신자들로 구성된 한 사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세계의 주요 종교 가운데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회교도와 이슬람\* 또는 마호메트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던 회원들은 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불확실했던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은 교회가 전세계적으로 존재하고 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 회교도들은 이슬람(“하나님께 복종함”이란 뜻)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슬람 경전은 코란(Qur'an[Koran])에 수록되어 있다.



는 관점에서 모든 말일성도와 관련이 있는 더욱 광범위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암시한다.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거룩한 영감을 받은 예언자, 경전, 시현 그리고 기적에 대해 말일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가? 다음은 내가 여러 해 동안 회교 사회에 대해 공부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얻은 복음의 통찰력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다. 회복된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사에서 마

호메트가 차지하는 역할을 알아봄으로써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 중 한 사람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나라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친구나 이웃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지침이 되는 원리들을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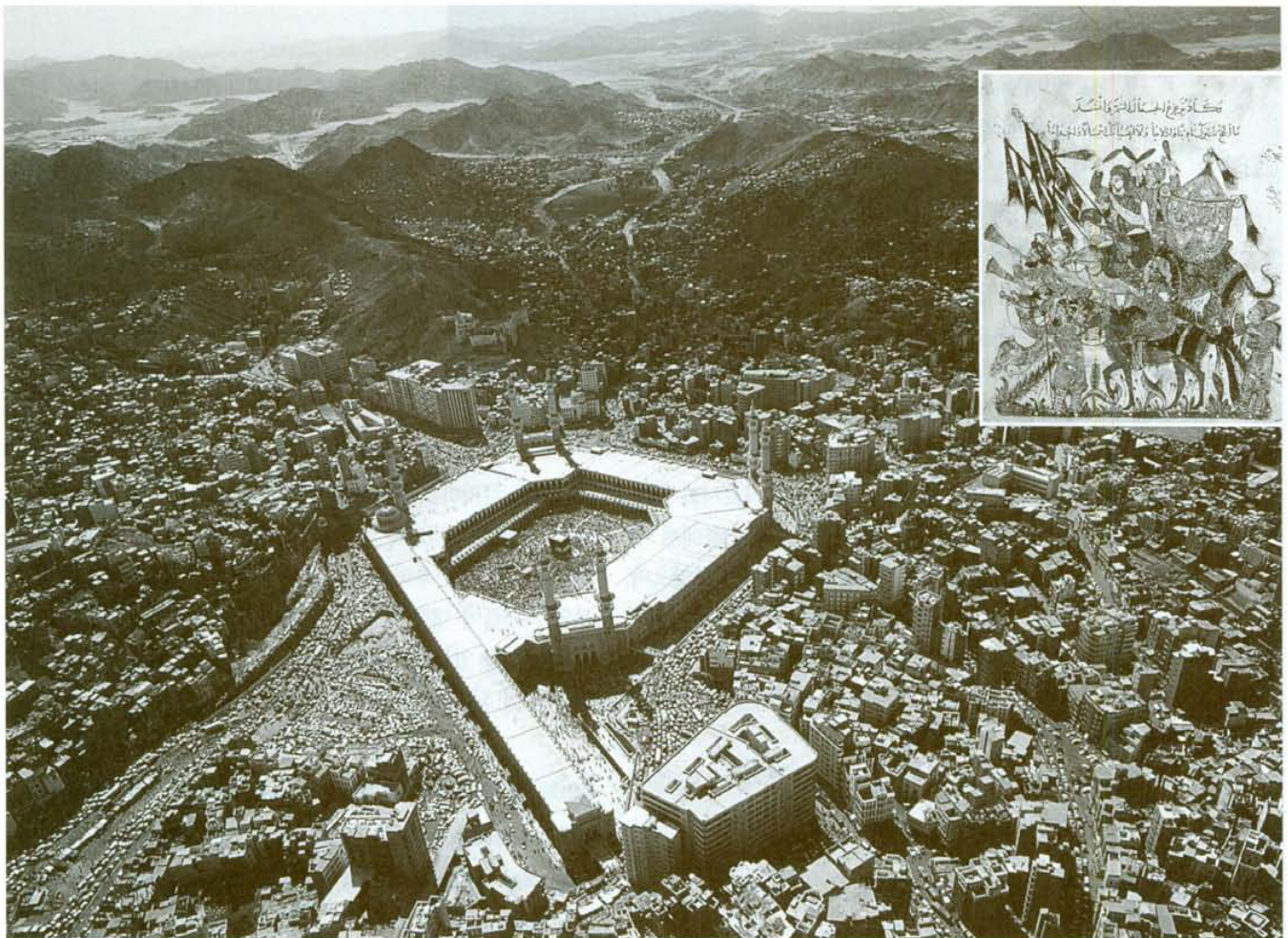
위: 회교도 종교 화가들은 알라 또는 마호메트를 인간의 형상에 따라 그리지 않고 이슬람의 성스럽고 예언적인 가르침을 나타내는 기하학적이고 언어적인 형태를 채택하여 그렸다. 여기서 코란의 원래 언어인 아랍어로 쓰여진 하나님(알라)의 이름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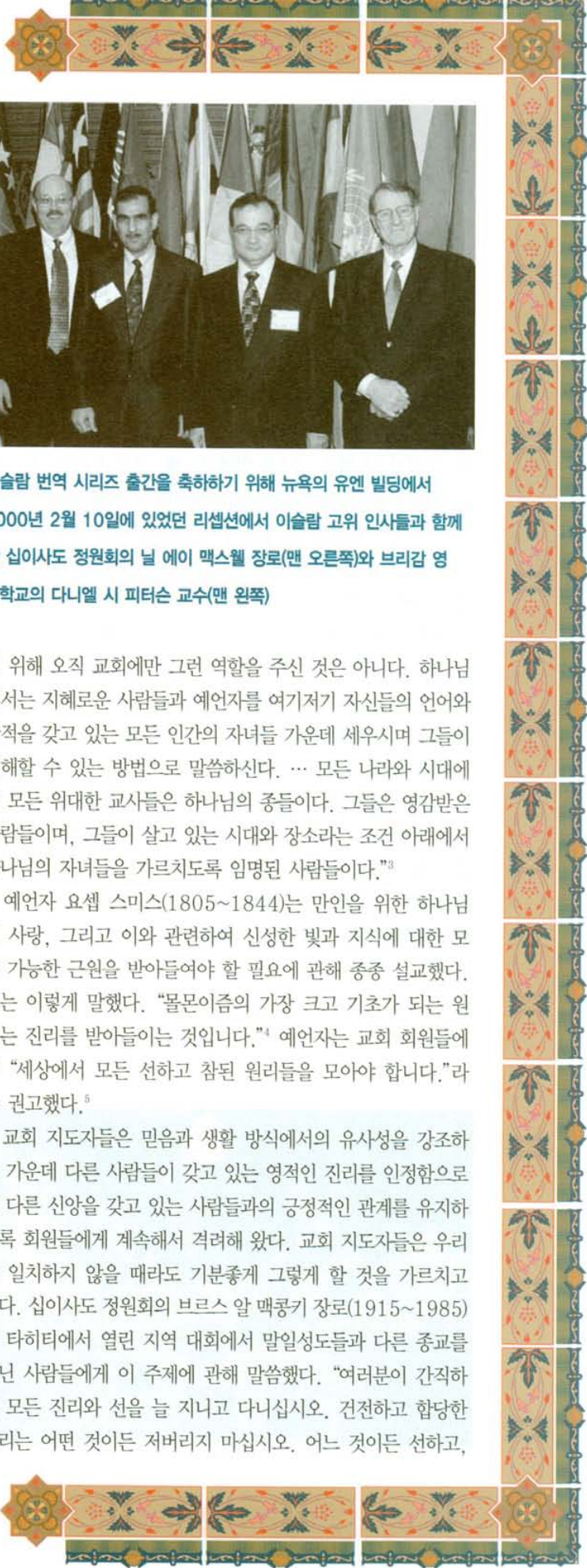
###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고든 비 힝클리 대판장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상호 존중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종교, 정치 그리고 철학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감사의 정신을 계발”하도록 권고했으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권고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느낌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의 가치관을 인식하고, 결점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덕성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장점과 덕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sup>1</sup>

**작은 그림:** 이슬람의 다섯 가지 중추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메카 순례이다. 이 13세기 그림은 메카로 여행하는 순례자들을 보여 준다. **큰 사진:** 오늘날 메카에 있는 대 사원(Great Mosque)과 카바(중앙에 위치해 있음)의 모습. 회교도들은 메카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로 여긴다.





헝클리 대관장이 다른 신앙에 대해 이해를 쌓아가도록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고대 및 현대의 예언자들이 가르친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들, 즉 겸손, 자애, 영원한 진리를 존중하고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누가복음 15장 참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세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의 복리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관심을 거듭해서 확신시켜 주셨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분은 참된 제자가 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정치, 인종 또는 종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동정심 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누가복음 10:25~37 참조) 그분은 종교적인 그룹들 사이에 있는 편협한 마음과 적대감,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높이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난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 자들과 같지 ...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자만심을 꾸짖으셨으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애원하는 세리의 겸손함을 칭찬하셨다.(누가복음 18:9~14 참조)

물몬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모든 사람들을 살피주시고 ... 그의 자비로우심은 온 세상에 임하”(앨마서 26:37; 또한 니파이일서 1:14 참조)신다고 가르치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영적인 빛을 마련하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1855~1931)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성도들만으로 스스로 이룩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장엄하고, 힘든 사업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약의 백성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십니다.”<sup>2</sup>

질십인 정원회의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1857~1933)도 이 교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졌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



이슬람 번역 시리즈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의 유엔 빌딩에서 2000년 2월 10일에 있었던 리셉션에서 이슬람 고위 인사들과 함께 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맨 오른쪽)와 브리감 영 대학교의 다니엘 시 피터슨 교수(맨 왼쪽)

기 위해 오직 교회에만 그런 역할을 주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예언자를 여기저기 자신들의 언어와 국적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자녀들 가운데 세우시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 모든 나라와 시대에서 모든 위대한 교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은 영감받은 사람들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장소라는 조건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임명된 사람들이다.”<sup>3</sup>

예언자 요셉 스미스(1805~1844)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신성한 빛과 지식에 대한 모든 가능한 근원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에 관해 종종 설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몬이즘의 가장 크고 기초가 되는 원리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sup>4</sup> 예언자는 교회 회원들에게 “세상에서 모든 선하고 참된 원리들을 모아야 합니다.”라고 권고했다.<sup>5</sup>

교회 지도자들은 믿음과 생활 방식에서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인정함으로써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회원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해 왔다.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일치하지 않을 때라도 기분 좋게 그렇게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쿱 장로(1915~1985)는 타히티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서 말일성도들과 다른 종교를 지닌 사람들에게 이 주제에 관해 말씀했다. “여러분이 간직하신 모든 진리와 선을 늘 지니고 다니십시오. 건전하고 합당한 원리는 어떤 것이든 저버리지 마십시오. 어느 것이든 선하고,

의롭고, 참된 과거의 표준을 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찾게 되는 모든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인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회복하신 더 많은 빛과 진리를 이곳에 와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진리를 알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 우리의 기쁨은 커질 것이며, 더 많은 진리를 받을 수록 영원한 세상에서의 우리의 보상은 더 커질 것입니다.”<sup>6</sup>

199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허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모든 진리를 함께 모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과 이해의 테두리를 넓히려고 힘씀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이 깃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sup>7</sup>

마찬가지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1992년 10월에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를 인용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인간이 관용과 상호 존중이라는, 어느 시대나 칭송되는 덕목을 스스로 실천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깊은 관심과 동정심으로 상대방을 인정할 때 상대방과의 차이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공

**라마단 월의 낮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은 이슬람의 다섯 가지 중추적 가르침의 한 가지이다. 바레인에 있는 한 가족이 동이 뜨기 전에 아침 식사를 들고 있다.**



존할 수 있음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 성명서는 일찍이 예언자 요셉이 관용을 탄원한 것을 현대에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함께 손잡고 서 있는 우리는 범 죄를 용납하지 않으나, 성스럽게 받드는 대상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이웃에게는 관용을 베풁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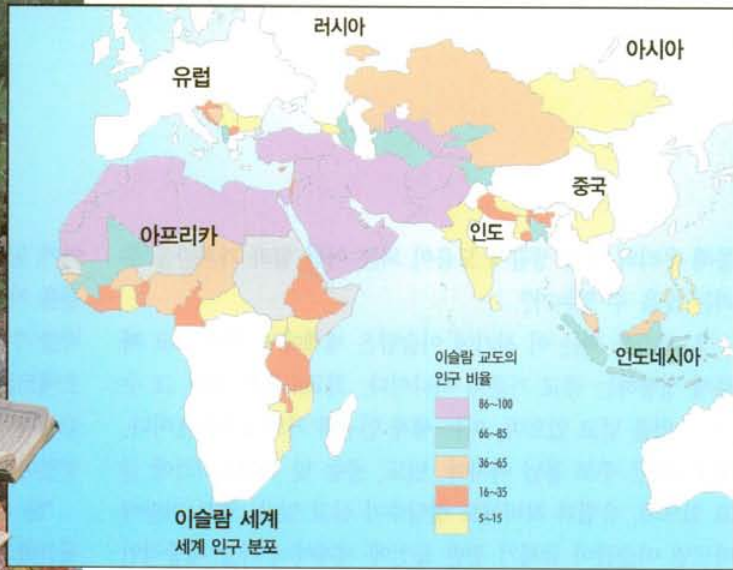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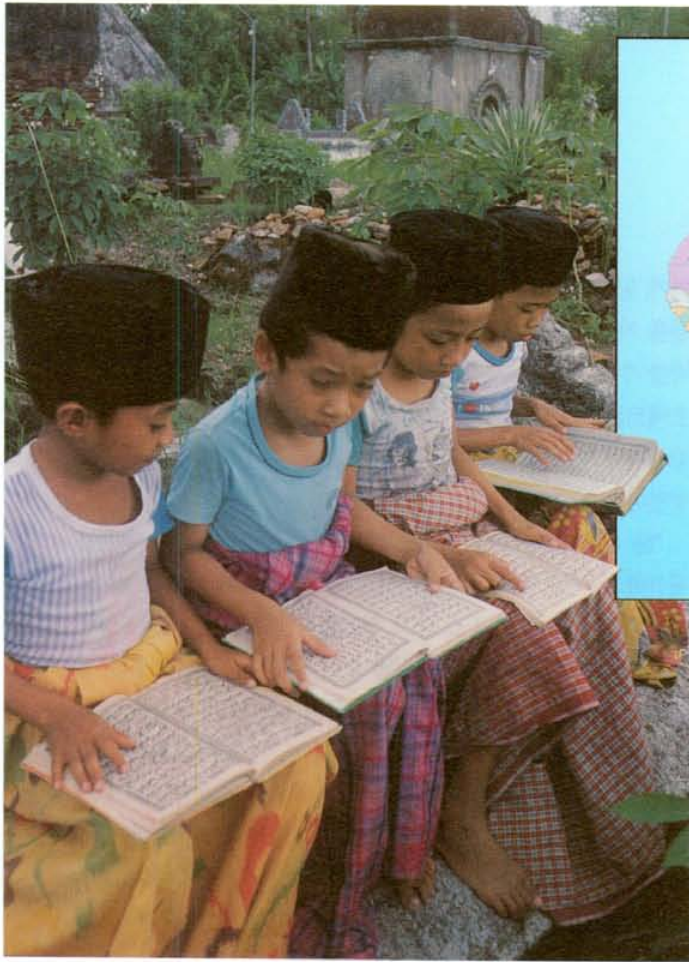
#### 마호메트에 대한 말일성도의 관심

말일성도들이 분명하게 믿고 있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한 가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마호메트의 영적인 공헌에 대해 찬사를 표현해 왔다는 것이다.

초기 무렵인 1855년, 일반적으로 기독교 출판물들이 마호메트를 비웃던 때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1817~1875)와 팔리 피 프랫 장로(1807~1857)는 이슬람의 역사에 관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이해를 설명하고 또 마호메트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는 긴 설교를 전했다. 스미스 장로는 마호메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며,” 우상 숭배를 타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말일성도처럼 그들에 관해 기록된 “올바른 역사를 얻기” 어려웠던 회교도들의 입장에 동정심을 표했다. 다음 연사로 말쑤한 프랫 장로는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대해 찬사를 표현하면서 “일반적으로 ... 회교도들은 많은 기독교 국가들보다 훌륭한 도덕적 가치관과 훌륭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 단언했다.

역사에서 마호메트의 역할에 대한 말일성도의 이해를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1978년에 대관장단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또한 볼 수 있다. 이 성명서는 특별히 마호메트를 “하나님의 빛의 일부”를 받은 “세상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도덕적인 진리를 주시어 온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이해의 수준을 더 높이게 하셨”다고 언급했다.<sup>10</sup>

최근에는 마호메트의 영적인 유산과 이슬람 사회의 종교적인 가치관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말일성도와 회교도 간의 접촉과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부분



여기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북아메리카에는 대략 7백만 명의 회교도가 살고 있으며, 인구 비율은 2.3퍼센트이다. 남아메리카에는 약 1백만의 회교도가 있으며, 인구의 약 2퍼센트를 차지한다. 왼쪽: 코란을 공부하는 말레이시아의 어린이들

사는 이 번역 시리즈가 “서방 국가에서 이슬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sup>12</sup>

말일성도와 회교도 사이의 이러한 교류의 예는 1989년에 교회가 중동(예루살렘과 암만)에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위해 주요 센터 두 곳을 설립한 것과 더불어 교회 지도자들이 초기부터 보여 온, 이슬람에 대한 전통적인 경의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회교 세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겠다는 말일성도의 노력에 대한 가시적 증거를 보여 주고 있으며, 또 역사적으로 회교도와 기독교도들 간에 있었던 문화적 차이의 극복을 돕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회교도와 말일성도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들을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한 정부 각료는 십이사도 위원회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에게 “기독교도와 이슬람 사이에 다리가 놓여진다면 그것은 물론 교회에 의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sup>13</sup>

### 마호메트의 생애

그렇다면 마호메트는 어떤 인물이며, 그의 생애의 어떤 점과 어떤 가르침이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고 찬사를 이끌어냈을까? 히글리 대관장이 제안한 것처럼 회교도들과의 경험을

적으로는 지중해 동부 연안, 북아프리카, 페르시아만 및 동남아시아에 말일성도 회교들이 있는 것에 원인이 있기도 하다. 교회는 중동의 여러 회교 국가에서 전도를 반대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회교도들의 개종을 금하는 이슬람의 율법과 전통을 존중해 왔다.

그러나 대화와 협력의 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회교도 저명 인사들의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본부 방문, 회교도들이 할랄(의례적 의미에서 정결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교회 통조림 가공 시설 사용, 요르단, 코소보 및 터키를 포함하여 회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보내진 교회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 구호 물자, 브리감 영 대학교와 이슬람 세계에 있는 여러 교육 및 정부 기관과의 학술 협력, BYU에서의 회교 학생 단체 활동, 그리고 가족에 대한 범세계적인 전통적 가치관을 수호하기 위한 교회와 이슬람 단체 간의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된다.<sup>11</sup> 최근에 BYU와 교회가 후원하는 이슬람 번역 시리즈는 회교권 공식 인사들과 말일성도 교회 지도자들 간에 몇 가지 의미심장한 교류를 가져왔다. UN에 파견된 한 회교국 대

통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떤 힘과 가치관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가?

21세기를 여는 이 시기에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 회교도들은 최근 그 수가 10억을 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다. 회교도들은 주로 동남 아시아, 인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에도 상당수가 살고 있다. 일부 전망에 따르면 이슬람이 금세기 전반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종교가 될 것이라고 한다. 역동적이면서도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러한 종교 운동의 그 근원은 마호메트가 보잘것없이 시작하여 사업의 기초를 놓던 14세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회교도들은 그를 세상에 이슬람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 마지막 예언자로 간주하고 있다.

마호메트(아랍어, "찬양받는 자")는 서기 570년에<sup>14</sup>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 지역에 있는 변영의 도시 메카에서 태어났는데 이 도시는 대상 무역과 종교 순례자들의 중심지였다. 어려서 고

아가 된 그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목동으로 일하며 청소년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는데, 그 일은 인생의 깊은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간과 홀로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마호메트는 다음 기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임 받는 중재자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명성을 얻었다.

"한 번은 코라이쉬(마호메트의 부족)가 카바(신성한 사당)를 재건하고, 기초 위에 있는 다시 돌을 놓기로 결정했다. 한 모퉁이에 그들은 검은 돌을 놓고 싶어했지만, 그 돌을 놓는 영광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들 모두가 칭송하고 신뢰하는 젊은 마호메트가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심한 논쟁을 벌였을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 논쟁을 진정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들에게 커다란 외투를 넓게 편 후 그 가운데 그 돌을 놓으라고 했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네 가문 중에서 한 사람씩 나와 외투의 한 모퉁이를 잡으라고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모두 돌을 놓는 영광을 나누었다."<sup>15</sup>

**회중들이 모이는 이탈리아 로마의 이 새로운 대형 사원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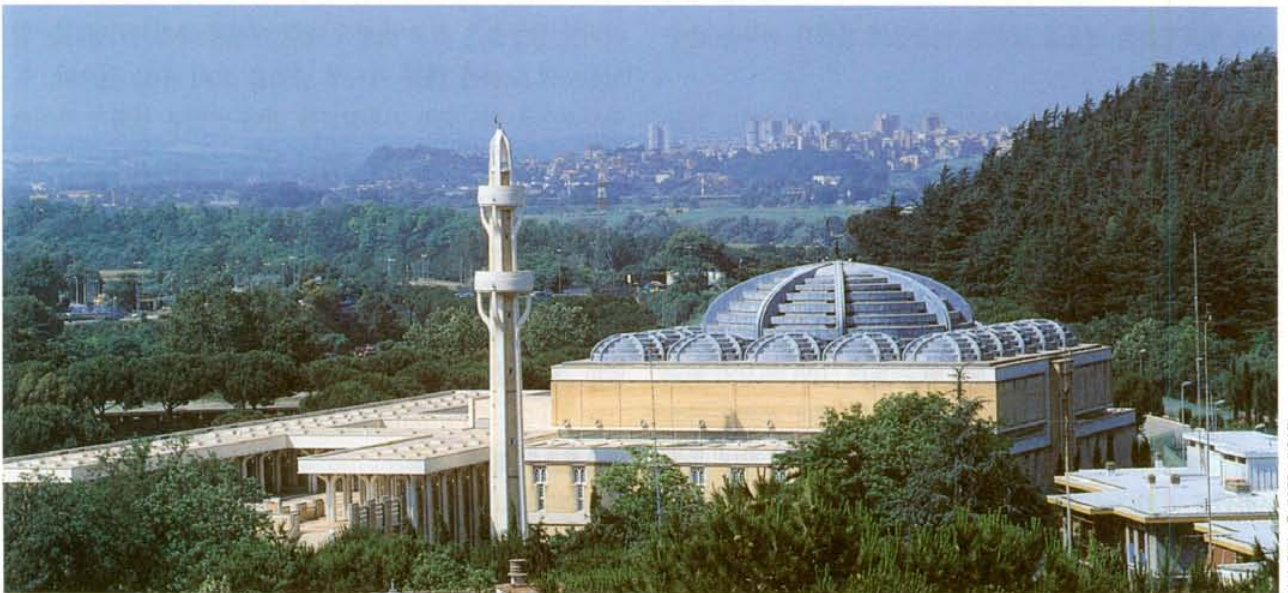


사진 촬영: © FOTO VASARI



25세에 마호메트는 15년 연상인, 변창하는 대상이었던 카디자라는 미망인과 결혼했다. 그녀는 그의 정직과 근면에 대한 명성을 익히 잘 알고 있었으며, 그에게 청혼을 하여 네 딸과 두 아들을 낳으며 성공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다. 그 후 15년 동안 마호메트는 힘을 합쳐 카디자와 함께 가족 사업을 경영하고 가족을 부양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그는 종종 사막의 외진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경배를 드렸다. 그는 메카를 병들게 하는 부패와 우상 숭배 및 사회적 불평등을 불만스럽게 여겼다. 그는 자신과 그의 사람들을 위해 평화와 정의 그리고 영적인 성취감을 제공해 줄 더 높은 진리를 추구했다.

40세가 되던 서기 610년, 그의 영적인 추구하고 준비는 절정에 달했다. 이슬람 역사에 따르면 어느 날 밤 마호메트가 메카 근처에 있는 히라 산에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아랍어, 알라)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sup>16</sup> 천사는 세 번이나 마호메트에게 말했다. “암송하라. 핏덩어리의 인간을 지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암송하라. 너의 주는 가장 후하신 분이니, 펜으로 가르친 분이시요, 인간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니라.” (코란 96:1~5)<sup>17</sup>

서기 610년부터 그가 죽던 632년까지 22년 동안 마호메트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그가 알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것을 기억하여 구두로 제자들에게 암송해 주었다. 이 알라의 생각과 뜻을 구두로 암송해 준 것을 회교도들은 총괄하여 알-코란(“암송”)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상 숭배, 다신론, 여아 살해 및 다른 종교적·사회적 부패 등을 반대하는 마호메트의 가르침은 메카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의 메시지는 초기에 메카에서 거부되었으며, 주로 몇몇 가족과 친한 친구들로 구성된 새로운 개종자의 사회는 고립되고 박해를 받았으며 심지어는 고문까지 당했다.

그때 야트립이라는 마을에서 온 일단의 사람들이 마호메트에게 마을을 황폐케 하는 논쟁의 중재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했다. 마호메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덜어 줄 기회라고 생각하고 메카를 떠나기로 동의했다. 먼저 그는 자

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마을로 갔는데, 그 후로 이 마을은 메디나트 안 나비(Madinat an-Nabi, “예언자의 성”) 또는 단순히 메디나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이 이주(아랍어, hijra-헤지라)는 서기 622년에 있었으며, 회교의 헤지라 려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다. 회교도들은 헤지라를 예언자의 생애와 회교 사회의 본질적인 면에서의 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마호메트는 거절당한 전도사에서 정치가, 입법자, 판사, 교육자 및 군사 지도자가 되었다. 메디나에서 회교도들은 안전하게 자신들의 사회를 세우고, 통치 및 교육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누렸으며, 메카에서 박해 받던 소수 종교 집단이었던 상황과는 반대로 번영하는 사회가 되었다.

헤지라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마호메트는 메카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그의 가르침은 그곳에서 점차 받아들여졌다. 오늘날 회교도들은 메카를 이슬람의 정신적인 중심지와 도시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있으며, 메디나와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및 세 번째의 중요한 도시로 여기고 있다.

632년, 62세에 마호메트는 잠시 열병을 앓고 나서 예기치 않게 죽음을 맞는다. 서구 문명에서 마호메트의 이름과 그의 업적이 논쟁의 주제가 되어 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그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후반부에 비회교권 역사가들은 더욱 편견 없이 찬사를 보내었으며, 정치 및 종교 분야에서의 마호메트의 업적으로 인해 그를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손꼽았다.

마호메트가 기독교도들의 적이라는 고정 관념을 서구 문명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회교 관련 자료들은 그를 변함없는 겸손과 친절, 훌륭한 유머, 관용 및 단순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종종 미소는 지었지만 그가 큰소리로 웃었다고 전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유명한 한 hadith(마호메트의 언행록)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가 안다면 그대는 큰소리로 울고 거의 웃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점잖은 유머는 다음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하루는 자그마한 한 노파가 그에게 와서 늙고 불쌍한 노파도 낙원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아니오, 낙원



에는 노파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근심하는 노파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왜냐하면, 낙원에서는 모두가 변형 될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젊은 시절의 사람들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고 실질적인 권고를 해 주었다. 한 사람이 문기를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굳이 낙타를 묶어 둘 필요가 있는냐고 묻자 마호메트는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묶어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기록에 보면 마호메트의 가족은 가난하여 자주 배가 고팠으며 가끔씩 아주 거친 빵을 먹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그가 말한 *faqri fakhri*, “가난은 나의 자랑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즐거움에서 얻는 기쁨을 나타내 주며, 이 말은 훗날 회교 수도자들에 의해 좌우명으로 채택되었다. 그는 특별히 어린이들을 좋아해서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도 어린 두 손자가 그의 등에 기어오르는 것도 그냥 두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그가 손자 핫산에게 입맞춤 해 주는 것을 보고는 비난하면서 말했다. “제게는 아들이 열 명이나 있는데, 저는 아무한테도 입맞춤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호메트가 대답했다. “자비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sup>18</sup>

그가 죽던 날 메디나의 회교 사원에서 전한 마지막 설교에서 마호메트는 그가 30년 이상 헌신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겸손과 관대함을 나타내 보였다. “저로 인해 명예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대가를 여기서 달게 받으십시오. 신체적으로 제가 이치에 맞지 않게 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제가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나 빚을 진 것이 있다면, 여기 제 재산이 있으니 와서 가져 가십시오. ... 아무도 ‘나는 하나님의 사자의 원한과 증오가 두렵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제 본성과 성격에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 싫습니다.”<sup>19</sup>

마호메트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염두에 둔다면, 회교도들이 공통적으로 그의 이름을 축복하고 대화에서 언급하며, 또 그의 생일을 경축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경건한 회교도

들은 일상 생활의 모든 면, 즉 복장, 몸차림, 식탁 예절, 종교 의식 및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대함 등에서 그의 모범을 따르려고 애쓴다.

### 마호메트의 가르침들

이슬람의 생활은 다섯 가지 기본 원리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 원리들은 일반적 용어로 코란에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마호메트의 가르침과 관습(아랍어, *sunna*)에 설명되어 있다. 이 다섯 가지 중추적 원리는 신앙, 기도, 선행, 금식, 그리고 메카 순례 등이다. 자선과 금식에 대한 마호메트의 가르침 중 몇 가지 예는 그가 가르치는 방법과 회교 생활에서 그가 갖는 구심적인 역할을 설명해 준다.

자선의 원리는 신자들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동정심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코란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계적인 의식의 준수가 아닌, 자비와 동정심이 한 사람의 합당성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2:177) 마호메트의 말씀은 자비를 실천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빌고 있는 것을 형제를 위해 빌 때까지는 믿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태양이 떠오르는 매일마다 온 몸으로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두 사람 사이에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자비이며, 자신이 타는 가축으로 사람을 도와 주고, 그를 그 가축 위에 태우거나 그의 소유를 그 가축에 실어 주는 것이 자비이다. 좋은 말을 해 주는 것도 자비이며, 기도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절차도 자비이며, 길에 있는 해로운 것을 치우는 것도 자비이다.”

“물이 불을 끄듯이 자비는 죄를 없앤다.”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것은 자비의 행동이다.”

“이웃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부른 상태로 잠을 자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sup>20</sup>

회교도들은 금식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여긴다. 겸손한 상태에 이르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과 지역 사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을 키우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것처럼 금식과 자선은 불가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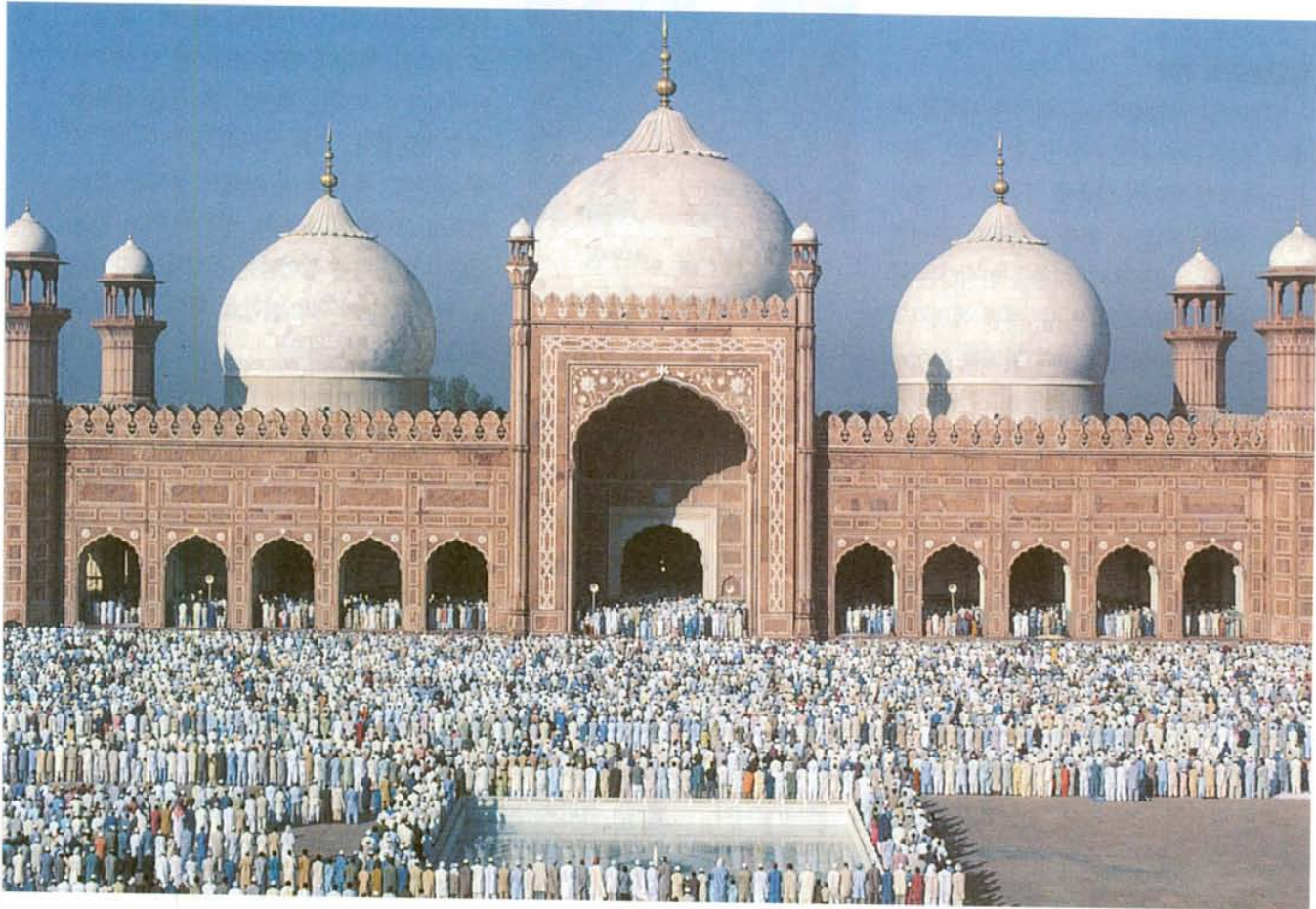


관계로 자신을 내어 주지 않고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온전히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거룩한 금식월인 라마단 동안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회교도들 가운데 머물면서 이 원리와 그들의 생활에 마호메트의 모범이 끼친 깊은 영향력을 상기하게 되었다.<sup>21</sup> 나는 가족과 함께 회교도 친구인 나빌에게서 그들이 금식을 푸는 가족 저녁 식사에 참여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카이로에서 극빈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 가운데 하나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들어가면

서 나는 한 방에 많은 여인과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앞에 있는 천에 음식을 펼쳐 놓고 매일 금식의 끝을 알리는 기도 신호를 마루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빌에게 그들이 친척이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여유가 없었던 낯선 사람들을 거리에서 초대하여 라마단 식사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관습입니다. 우리의 예언자 마호메트가 실천했던 관습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명절은 희생의 축제로 이 축제는 순례 여행의 종결을 나타낸다. 수천 명의 회교도들이 이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파키스탄 라호르에 있는 바드사히 모스크에서 공동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회교도 친구의 비이기적인 마음과 동정심에 나는 큰 감동을 받았으며, 또한 내가 오래 전에 성경에서 배웠지만 거의 실천한 적이 없는 한 가지 원리를 실천하는 그의 모범을 보고 겸손해졌다. 성경에 있는 바로 이러한 원리였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누가복음 14:12~14)

#### 말일성도의 견해

그렇다면 말일성도들은 회교권 사회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가장 도움이 되는 접근은 신학적인 차이가 있음을 정중하게 인정하면서 우리의 회교권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진리와 가치관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현대 예언자의 필요성, 또는 영원한 진보의 원리를 부인하는 회교의 가르침은 분명 말일성도들과 맞지 않는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어느 곳에서 찾게 되든 영적인 빛에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는 회교도들의 종교적인 통찰력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영성과 사회 생활의 초석으로서의 신앙, 기도, 금식, 회개, 동정심, 겸양 및 강한 가족 관계 등에서 비슷한 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2</sup>

회교권 인사들과 가졌던 한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물문과 회교의 공통적인 영적 유산에 초점을 맞추었다. 코란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빛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과 같이 믿습니다. … 우리는 가족이라는 조직을 존중합니다. … 우리는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조직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 상호 존중, 우정 및 사랑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값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슬람 형제 자매들에 대해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입국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세대와 문화를 연결시켜 줍니다.”<sup>23</sup>



전세계에서 온 2백만 명 가운데 한 명인 이 순례자의 국적과 복장은 이슬람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관용과 동정에 관한 가장 웅변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에서, 인류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다른 신앙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편협하고 모순된 생각에 따라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것을 성도들에게 장려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개인적, 정치적 및 사회적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실 것이며, 인간이 갖고 있는 제한된 이해력을 뛰어넘는 신성하고 자비로운 관점에서 마지막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인간들이 서로의 부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반면에, 우주의 대 부모이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듯이 온 인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그의 자녀로 보시고, 자녀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고삐를 쥐고 계십니다. 그분은 현명하신 율법의 수여자이시며, 인간의 편협하고 모순된 사상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육신으로 선 혹은 악을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없는 것으로’ 심판하지 않고 ‘사람이 가진 것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은 율법 없이 심판 받을 것이요,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여호와와 그의 지혜와 예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그들의 공의와, 그들이 예지를 받는 방법과, 그들이 다스림을 받는 율법과,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지고, 미래의 장막이 견혀질 때, 우리는 온 땅의 재판장이 올바르게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sup>24</sup>

교회에서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나는 우리가 마호메트와 다른 위대한 교사들, 개혁가들, 그리고 종교 설립자들이 가르친 진리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교회에 속해 있는 상황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다른 종교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회복된 복음의 계시된 영원한 진리들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피할 수 있다. 오히려 현대의 예언자의 권고에 따라 우리는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유덕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 “긍정적인 감사”의 태도를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말일의 계시로 주어진 추가 분량의 영원한 진리들을 나눌 수 있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빛을 존중하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

제임스 에이 토론토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이슬람학 및 비교종교학 부교수로 있다.

## 주

1.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he Biography of Gordon B. Hinckley* (1996), 536, 576쪽에서 인용.
2. Conference Report, 1921년 4월, 32~33쪽.
3. *Defense of the Faith and the Saints*, 2 volumes (1907), 1:512~513.
4.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96쪽.
5.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00쪽.
6. 러셀 엠 넬슨,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70쪽에서 인용.
7. “복음 — 온 세상의 신앙”,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20쪽.

8.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71쪽.
9. *Deseret News*, 1855년 10월 10일, 242, 245쪽 참조.
10. 대관장단 성명서, 1978년 2월 15일.
11. 가족과 관련된 활동을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있는 the World Family Policy Center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센터는 범종교 연합단체인 세계 가족 회의를 공동 후원하며 이 단체에는 많은 회교 국가에서 온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12. Michael R. Leonard, “Islamic diplomats hosted in New York,” *Church News*, 1999년 4월 3일, 6쪽 참조.
13. Howard W. Hunter, “‘All Are Alike unto God,’” *Ensign*, 1979년 6월호, 74쪽.
14. 서기는 서력 기원을 나타냄
15. Iqbal Ahmad Azami, *Muhammad the Beloved Prophet* (1990), 14~15쪽. 카바는 메카에 있는 거룩한 신전으로 회교도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σμα엘이 지었다고 여기고 있다.
16. *Allah*(알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Al-ilah의 축어이다. 그것은 모든 회교도들과 기독교 아랍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것은 또한 말일성도 경전에서도 채택되어 있으며 아랍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관습적으로 사용된다.
17. A. J. Arberry, 번역자, *The Koran Interpreted* (1955), 344쪽.
18. 마호메트 개인에 관한 이러한 일화들은 Annemarie Schimmel, *And Muhammad Is His Messenger: The Veneration of the Prophet in Islamic Piety* (1985), 46~49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 Jafar Qasimi, “The Life of the Prophet,” in *Islamic Spirituality*, Seyyed Hossein Nasr 편집(1991), 92쪽.
20. 이곳에서 인용한 처음 세 개의 hadith은 *al-Arba in al-Nawawiyya [Nawawi’s Forty Hadith]* (1976), 56, 88, 98쪽에서 인용한 것이다. 나머지 두 개의 hadith은 필자가 회교도 친구들 또는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기록한 것들이다.
21. 라마단 동안 회교도들은 연속적인 30일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 음료, 담배 및 다른 신체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을 금한다.
22. 회교의 세계 또는 교리적인 유사점 및 차이점에 관해 더 알고자 하면, 다음 자료들을 참조한다. Daniel C. Peterson, *Abraham Divided: An LDS Perspective on the Middle East* (1995), 또는 James A. Toronto, “Islam,” Spencer J. Palmer and Roger R. Keller, *Religions of the World: A Latter-day Saint View* (1997), 213~241쪽.
23. *Church News*, 1999년 4월 3일, 6쪽 및 필자의 개인 관찰 및 노트.
24.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05쪽.

# “만인을 위한 구원”

## 십 범

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 지식을 받는 도구 또는 계시자이며, 아버지의 계획에 있는 조항들과 조건들을 가르치도록 거룩하게 부름받았으며, 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열쇠를 받았습니니다.”(이번호, 12쪽 참조)



통해 계시된 지식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식을 찾게 될 때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어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 특히 가족과 나누고 싶어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들은 복음이 주는 기쁨을 찾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가족, 즉 현재 살아 있는 사람뿐 아니라 장막 저편으로 가신 분들에게까지 돌리는지를 보여줍니다.

## 신앙의 시련

아우렐리아 에스 디에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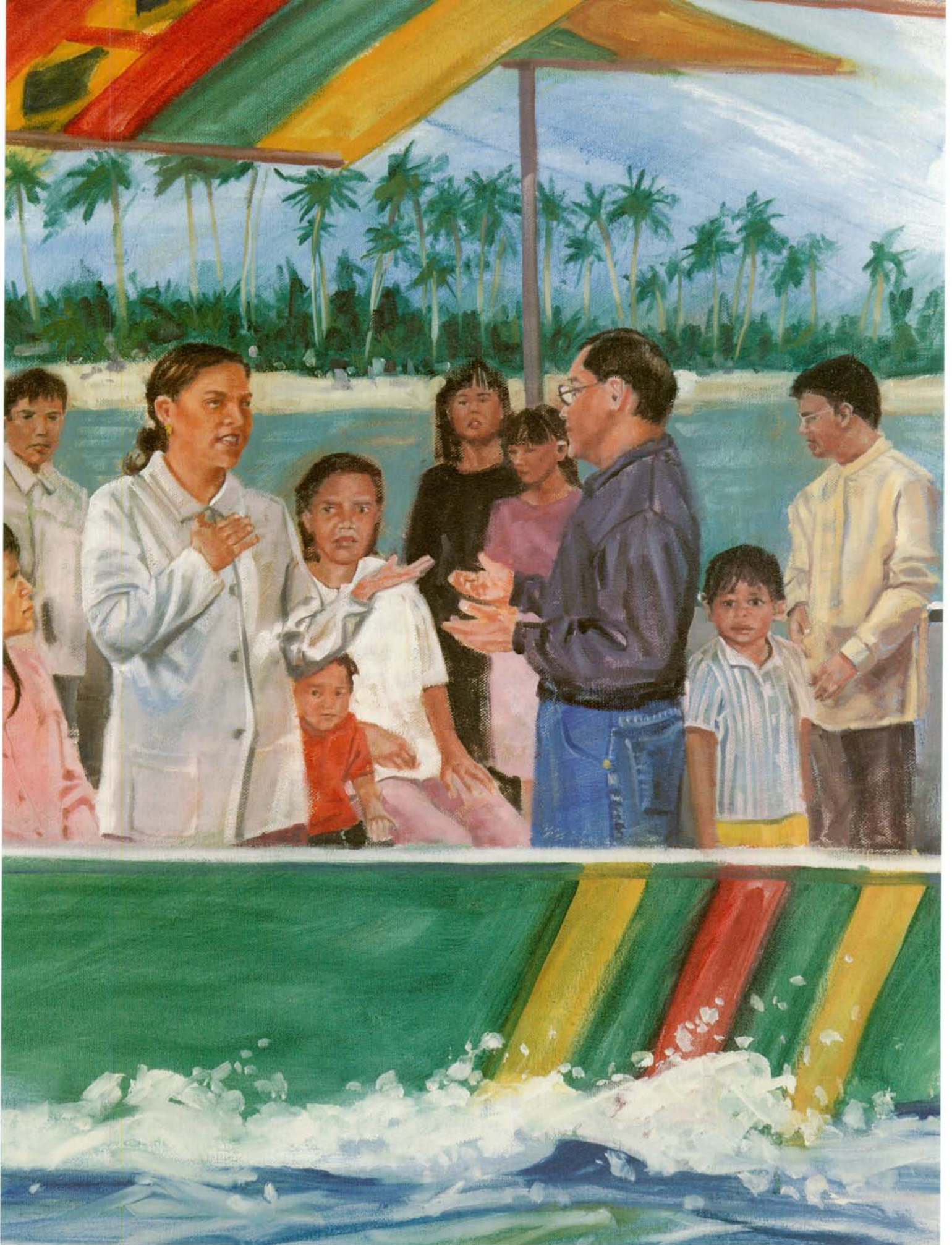
**교**회 회원으로서 내 생애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었다.

나는 필리핀에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배는 승객들로 만원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파란 수평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거나 친구나 친지들과 더불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군중 속에서 외롭게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몇 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이제 어머니를 보게 되었다는 기대감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신앙심이 깊은 가족과 생활하며 자랐다. 일상 생활에서 반복되는 종교 의식이 끝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다른 교회들을 알아보다가 마침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강력한 프로그램, 건전한 교리, 적절한 복음의 가르침 그리고 친절한 분위기로 인해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보다 내가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느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러한 나의 선택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침례를 받고 난 후, 훗날 신앙의 시험이라고 알게 되었던 상황 속에서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쇠막대를 굳게 잡고 있던 손을 점차로 놓았다.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부지런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때에 어머니가 생각났는데, 그분은 인

한 남자가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는 여인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몇 가지 가르침을 억지로 전해 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불편함을 감지하고 나는 도와 주려고 했다.



생의 여러 가지 시련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신앙을 지켜 오신 경건하고 온화하고 이해심 많은 여성이었다. 다른 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는 슬픈 모습으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는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란다. 하지만 네가 새로운 교회에서 더 잘 해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그 교회에 진실해야 하고 네가 믿는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자 당혹감이 물밀듯 밀려왔다. 어떻게 이처럼 흔들리는 신앙을 갖고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 새로 찾은 종교 생활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어쩌나? 당황하지 않고 어머니를 쳐다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고심하고 있을 때 나는 **교회와 종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 옆에 앉아 있는,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는 여인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몇 가지 가르침을 억지로 전해 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불편함을 감지하고 나는 도와 주려고 했다.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물었다. “어떤 교회에 다니십니까?” 잠시 동안 그의 눈은 마치 “여기 내 가르침에 가까이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한 영혼이 있구나”라고 말하는 듯이 흥분과 기쁨으로 번뜩였다. 그가 벌떡 일어서더니 내 곁으로 옮겨 왔다. 그는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의 교회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그 교회는 종교적인 논쟁으로 잘 알려진 교회였다.

나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지만 겉으로

나타내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영적인 확신을 잃어 가고 있는 시기로 마음에 의심의 안개가 가득한데 어떻게 신앙을 수호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구해 준 여인을 흘끗 쳐다보면서 끼여들지 말 것을 그랬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나를 안심시키는 표정으로 내 신앙을 옹호하라고 격려하는 듯했다. 나는 용기를 모아서 이러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조용히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다.

자신감이 몸 전체에 흘러 넘쳤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더 말할 틈도 없이 그가 말을 가로챘다. “그 교회와 그 설립자에 관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 금판, 물문경 등에 대해 공격적인 말을 계속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느낀 것에 나 자신도 놀랐다. 내 신앙을 옹호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교회로부터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걱정되었다.

내가 가장 놀란 것은 내 입에서 튀어나온 확신에 찬 말로서, 나는 어느새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첫번째 시현, 그리고 물문경 등의 진실함과 실재에 대해 증거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요셉 스미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가 이 마지막 경문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나의 간증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어떻게 그런 확신에 찬 진리들이 내 입

에서 흘러나올 수 있었는지 나도 믿을 수가 없었다. 신앙의 시련 속에서도 증거하기 위해 영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확실히 나는 알았다.

신앙이 새롭게 된 나는 이터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야 증거를 얻겠음이라.” 그 구절이 내게 중요한 의미를 전해 주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내 마음에는 평화가 가득했으며 어머니를 빙고 복음이 내 생활에 가져다준 기쁨과 평화의 축복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우렐리아 에스 디에존은 필리핀 칼라페 지방부, 칼라페 지부의 회원이다.*

## 내 생명이 연장된 이유

마리아 맥퍼슨

**쿠**바에서 성장하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돌이켜볼 때 늘 떠오르는 한 가지 추억이 있다. 사랑하는 어린 동생 라울이 병들어 있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다. 어머니가 동생을 돌보며 주기적으로 절망스럽게 우시던 모습과 할머니께서 정신없이 도움을 구하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온 가족이 동생의 침대 위로 몸을 구부려 울던 모습도 그려볼 수 있다. 나는 늘 동생의 고통과 가족의 눈물을 어떤 높은 위치에서 보고 있는 듯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장면이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나는 결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내가 열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다섯 자녀를 두고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죽음도



내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으며, 그 질문들이 결국 나를 진리로 인도했다.

교회는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다가 1986년 어느 봄날,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었다. 물론경을 공부하면서 그 진실함에 대해 얻은 간증으로 인해 나는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다. 나는 7월에 침례를 받았다. 1년이 조금 지난 후에 나는 성전에서 라울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았다. 그런 후에 라울과 나는 부모님에게 영원히 인봉되었다.

복음을 발견한 후로 내 생활은 변화되어 왔다.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는 그 이후로 결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다. 나는 내 생애에 목적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한 고통을 통해 배우고 강화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이생의 장막 지면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있다. 언젠가 내 영이 내 육신을 떠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내 영과 육이 영원히 재결합될 것이며, 내가 그분과 그리고 나의 가족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마리아 맥퍼슨은 위스콘신 밀워키 스테이크, 엘크혼 와드의 회원이다.

슬펐지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형제 자매들과 내가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것이다. 아무도 우리 다섯을 다 말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부모와 외조부모께서 두 명씩 말고 고모가 막내 동생인 올란도를 맡기로 했다. 반항심 때문에 나는 결국 고아들을 돌보는 학교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슬프고, 외롭고, 비통한 마음을 갖고 자라났다.

열 여섯 살이 되었을 때 나는 동생들을 찾기 시작했다. 올란도는 고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사갔기 때문에 세 명만을 찾을 수 있었다. 라울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는 전기 기술자로서 일을 배우던 중 감전되어 죽었다.

라울을 잃고 정신이 없었던 나는 할머니에게 그가 아프던 때의 기억을 말했다. 할머니께서 내게 물으셨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라울은 아프지 않았다. 아픈 건 너였단다. 어느 날 밤에 내가 몹시 아팠는데 의사는 네가 죽은 줄 알고 포기했지. 우리는 절망에 빠져서 네 침대 위에서 슬피 울었단다. 우리는 네 심장이 왜 다시 뛰기 시작했는지 전혀 몰랐지.”

나는 너무 놀라서 할머니에게 더 이상 물어 보지 못했으나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내 생명이 연장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십 년 후 나는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나는 동생 올란도를 찾았다. 그러나 아직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나는 여러 교회에서 그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회마다 단편적인 답을 알려 줄 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답을 가진



## 엽서를 통한 탐구

보비 모간

**몇**년 전 나는 4대 가족 기록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결국 에드워드라는 종조부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완전하게 수집했다. 나는 그 분의 출생과 사망 일자에 관해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 결국 도움이 될 만한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 이 기록이다 싶어서 찾아보면 분명 에드워드의 기록이 있어야 할 곳은 흰 공백으로 되어 있었다.

여러 번에 걸쳐 그에 관한 내용을 찾지 못해 실망했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이 될 만한 기록이나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루는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본 후에 엽서를 하나 집어 들고 한때 에드워드의 가족이 살았던 한 마을의 “도시 묘지 관리인” 앞으로 주소를 적었다. 뒤에다 나는 에드워드 오렌 타버튼이라는 이름의 무덤이 있느냐고 묻는 간단한 질문을 적었다. 그 도시에 묘지가 있는지조차도 확실히 몰랐지만 엽서를 보내면서 갑자기 좌절감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꼈다.

엽서에 대해 아무런 답장도 없이 몇 주가 지나갔다. 사실 나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다른 때와는 달리 마음이 흥분되는 것을 느꼈다. 우편물 배달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우편물을 가지러 뛰어나갔다. 그 날은 우편물이 많았지만 열린 우편물 함 옆에 서서 하나씩

우체국장은 직접 엽서를 가지고 가서 무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날짜들을 적어 보내 주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우편물 봉지 속에는 내가 보낸 엽서가 있었고 거기에는 에드워드에게 관해 이제까지 찾지 못한 자료들이 적혀 있었다.

오랫동안 찾아왔던 날짜들이 엽서에 적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느낌이 마음속에서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 에드워드 할아버지께서 나와 어느 정도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었으며 그 분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엽서를 보내라고 했던 속삭임과 엽서가 되돌아오던 날의 상황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엽서를 보낸 그 마을에는 공동 묘지도 없고 무덤 관리인도 없었다. 그 마을에 내 조상에 관해 알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우체국장이 엽서에다 반송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그 무덤이 있는지 직접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는 조그마한 교회 근처의 밭에서 비석들을 본 적이 있던 것을 기억했다. 그 우체국장이 그곳에서 에드워드의 비석을 찾아내서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적어 보낸 것이었다.

이 경험으로 조상에 대한 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으며 그들이 그 가족들에게 영원히 인봉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이후로 여러 해 동안 가족 역사를 탐구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나는 그 엽서를 생각하고는 일을 계속해 왔다. □

보비 모간은 애리조나 메사 스테이크 올리브 와드의 회원이다.



# 알고 계십니까?



## 6월에 일어난 일

다음은 교회 역사에서 6월에 일어난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이다.

1830년 6월 9일, 뉴욕 주, 페이에트에서 열린 교회의 첫번째 대회에 27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1840년 6월 6일, 영국 리버풀에서 41명의 교회 회원이 미국을 향해 출발했

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시온으로 온 많은 성도들 가운데 첫번째 무리였다.

1844년 6월 27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 스미스가 일리노이 주,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했다.

1895년 6월 9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첫번째 스테이크가 캐나다 앨버타 주의 카드스톤에 조직되었다.



## 개혁자 신앙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으며,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이 산악 지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1847년 7월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온 후에 그렇게 말했다. 계곡은 불모지였지만 영 대관장은 사막이 장미꽃처럼 피어날 것을 믿었다.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격려가 될 만한 것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 우리는 곡식을 키울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손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천만에요.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앙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불모의 땅에서 크나큰 축복을 받았다. “이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이 땅보다 더 축복 받은 땅은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고 겸손하며 밀과 옥수수, 귀리, 과일, 채소, 가축 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며, 지상에 그의 왕국 건설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때, 이 땅은 앞으로도 더욱 더 축복 받을 것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104~106쪽 참조)



##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효과적으로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구세주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은 지도자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할 당시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청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능동적으로 듣는 데에는 의지력, 집중력 및 커

다란 정신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보상은 많

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참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Building Bridges”, *New Era*, 1985년 11월호, 66쪽)  
효과적인 경청이란 또한 고요하고 작은 음성의 속삭임에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교리와 성약 84:88 참조) 영의 속삭임에 경청한다는 것은 지도자가 주님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의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

# 리아호나

## 2002년 6월호

### 활용하기

#### 토론 제언

■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2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템플 스콰어를 방문한 어린 소년 타일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타일러와 같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그의 사랑을 느꼈는가?

■ “요셉 스미스, 예언자” 10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구세주와 교회 회원들을 위해 기꺼이 그의 목숨을 바쳤다고 설명했다. 요셉 스미스의 사명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든 “내 하리라”고 대답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 “우리 선조들의 신앙,” 친구들 2쪽. “용감한 종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개척자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라고 조셉 비 워스킨 장로는 말한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개척자들의 신앙을 존중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용감한 종이 될 수 있는가?

사진 삽화, 크레이그 다이몬드와 스티브 번더슨

#### 이번 호의 주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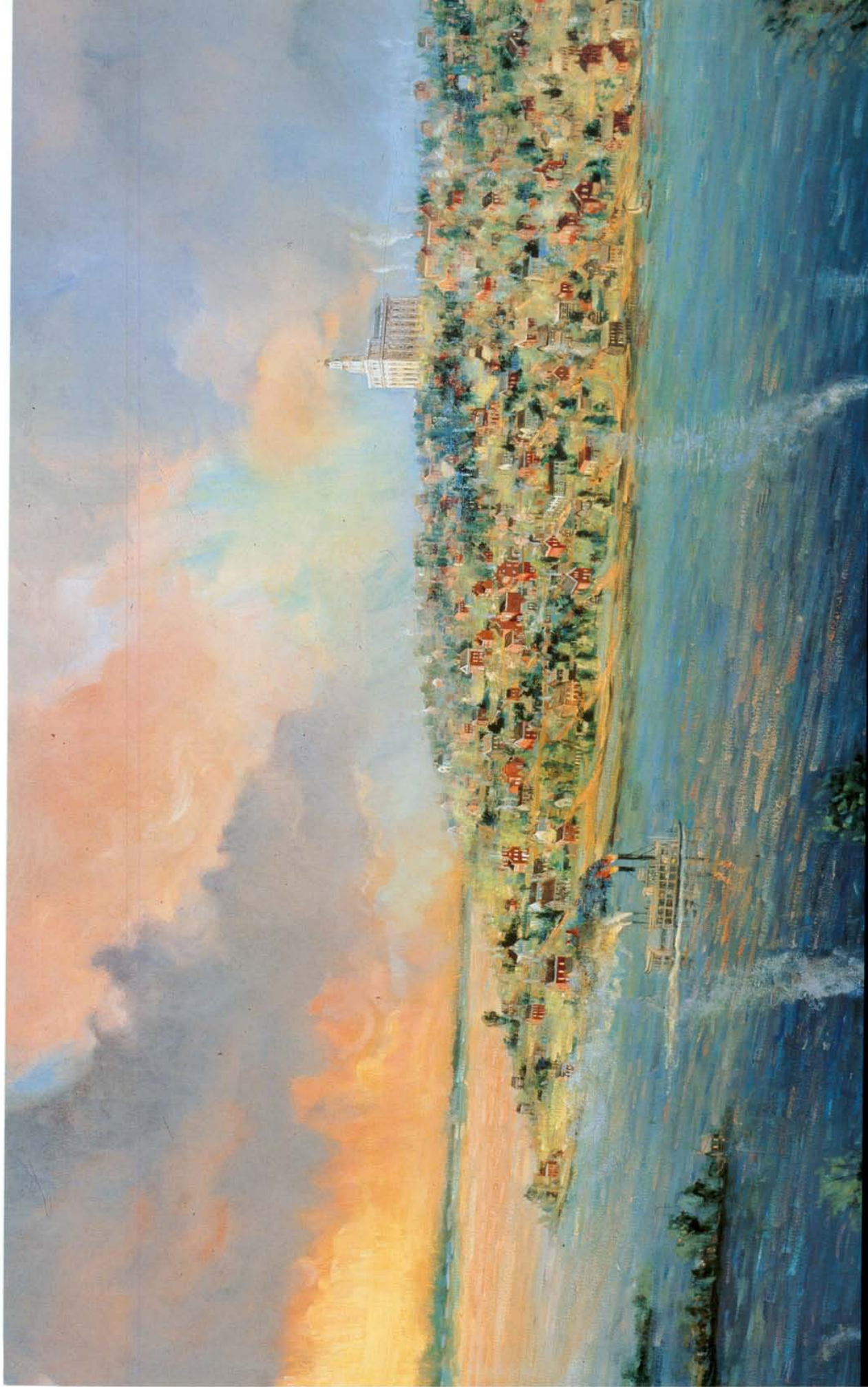
- 가정 복음 교육 ..... 9
- 가정의 밤 ..... 48, 친14
- 가족 관계 ..... 25, 친14
- 가족 역사 ..... 42, 친14
- 결혼 ..... 25
- 개종 ..... 42
- 개척자 ..... 친2, 친4
- 관용 ..... 30
- 교회사 ..... 47, 친2, 친4
- 기도 ..... 20, 친12
- 물문경 ..... 10
- 방문 교육 ..... 25
- 봉사 ..... 2
- 선교 사업 ..... 20
- 성전 및 성전 사업 ..... 친10
- 신권 ..... 친12
- 신앙 ..... 2, 42, 친2
- 신약 성서 이야기 ..... 친6, 친8
- 어린이 ..... 2
- 역경 ..... 10, 22, 42
- 예수 그리스도 ..... 2, 친6, 친8
- 예언자 ..... 친4
- 요셉 스미스 ..... 10
- 우정 ..... 22, 26
- 우정 증진 ..... 22, 26
- 이슬람 ..... 30
- 전세계적인 교회 ..... 26, 친14
- 지도력 ..... 47, 48
- 첫번째 시현 ..... 10
- 초등학교 ..... 친10
- 친절 ..... 22
- 활동 촉진 ..... 26
- 회복 ..... 10
- 희생 ..... 친2, 친4

#### 자신의 지식 테스트

1. 말일의 어느 예언자가 다른 한 예언자의 조카였는가?
2. 가장 큰 성전은 어느 성전인가? 가장 작은 성전은 어느 성전인가?
3. 물문경은 몇 개 언어로 출판되어 있는가?
  - ㄱ. 50개 미만
  - ㄴ. 50에서 75개 사이
  - ㄷ. 76에서 100개 사이
  - ㄹ. 100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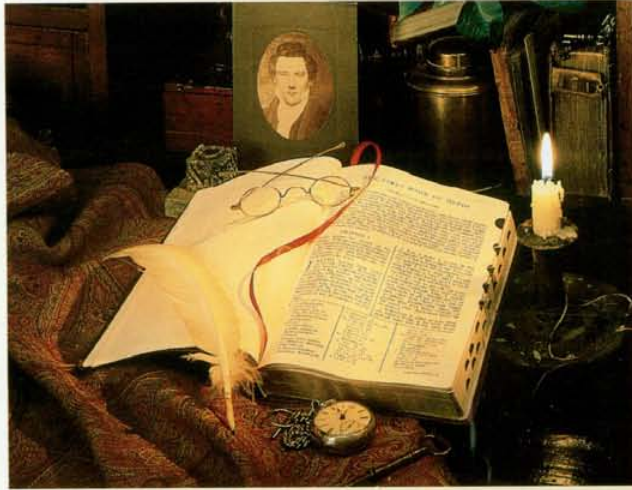
\* (C) '리아호나' 금강 출판사. '리아호나'에 실린 모든 글은 '리아호나'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무단으로 복제, 배포, 판매, 대여, 전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 '리아호나'는 '리아호나'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무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 '리아호나'는 '리아호나'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무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아름다운 니부, 래리 윈버그

1999년 4월 영국 오페라 대회에서 고든 비 싱클러 대관왕은 '기시사피 강둑에 최초로 그려낸 건물들'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1999년 7월호 105쪽 니부에 성전을 재건한다고 발표했다. 위에 모든 바우 같이 원래의 구조와 거의 비슷하게 재건축이 새로운 건물은 2002년 6월에 완공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모로나이 천사로부터 받은 금판에서 번역한  
물몬경은 “교리, 역사 및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책입니다. 그 책이 지닌 고결함은 17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지각없는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지만, 그 책의 입지나  
영향력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확고합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요셉 스미스, 예언자”, 10쪽 참조.

